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대한민국 경제 체급,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Aa3!
역대 최고 등급 획득!
우리만 또 올랐습니다!
Aa3는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Moody's 기준)
일본, 벨기에와 경제체급이 같아졌습니다.
이자비용도 크게 줄고
국가브랜드는 높아졌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세계경제에 위풍당당,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Weekly
공감
2012.09.05 NO.174
korea.kr/gonggam
COLORCODE®
칼라코드팝으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london
Paralympic Games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
8.29~9.9
세계자연보전총회
2012 제주
'묻지마 범죄'와의 전쟁
민생치안 확실히 다진다 P15~29
국가신용등급 '더블A'로 상향… "경제 선진국" P6~9
'상생과 공생발전의 견인차' 사회적기업의 진화 P40~45
표지 태풍피해 복구에 군 장병들 나섰다 P10~11

'묻지마 범죄' 대책 길게 보자

김준호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불경기가 지속돼 살아가기 어려운 요즘, 소위 '묻지마 범죄'로 세상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란 전문용어는 아니다. 언론의 작명인데 과장과 선정성이 없지 않으나 잘 지은 말이다.

묻지마! 무엇을 묻지 말라는 것인가? 범죄학 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하려면 다음의 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범죄를 저지를 합리적인 '동기가 있는 가해자', 두번째는 범죄자가 나름 '합리적으로 선택한 피해자', 마지막 세번째는 상황적인 요소로서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적합한 보호요소'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묻지마 범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가해자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 '화가 나서', 심지어는 '그냥'이라고 한다. 묻지마 범죄의 두드러진 특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마구잡이식 범죄라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피해자도 없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치고 쉽게 잡히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는 백주 대낮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한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범죄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묻지마 범죄자의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신이상자, 소위 '싸이코패스'는 아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동기일 것이다. 동기화한 가해자가 없다면 범죄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묻지마 범죄자들은 '화가 났을까'? 묻지마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범죄이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범죄,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범죄는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자가 이해한 상황이 옳다는 전제는 없다. 즉 범죄자가 당한 피해 혹은 억울한 일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말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다.

화가 치미는데 화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늘에 대고 주먹질을 하듯 마구잡이식 범죄가 발생한다. 묻지마 범죄를 줄일 특단의 방법은 없다. 우리 사회가 소외된 사람을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 화나는 사람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사람들은 어떤 때 화가 나는가? 상황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화가 치민다. 더구나 특별한 이유 없이 되는 것도 없고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절망감과 더불어 화가 난다. 화가 치미는데 화를 해결할 방법도 없을 때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늘에 대고 주먹질을 하듯 마구잡이식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의 범죄가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낼수록 묻지마 범죄는 증가할 것이다.

묻지마 범죄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다. 장기적인 대책수립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사람, 특히 소외된 사람을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 화나는 사람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 생각한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Contents 174호

2012.09.05 통권 275호

표지 이야기 | 다시 일어섭시다! 두 차례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경기도 파주군 조리읍에서 8월 31일, 육군 1군단 장병들이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연합

기획특집

우범자 밀착관리 재범 못하게 감시해야

무차별 폭행, 살인, 성범죄 등 짧은 기간에 연이어 터진 강력범죄들이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모르는 이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묻지마 범죄'다. 행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사람들…. 무엇이 이들을 괴물로 만든 걸까. 전문가들은 해소하지 못하고 내부에 쌓아 놓은 '좌절'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경쟁 지향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즉 우리 모두 잠재적인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에 안겨진 중요한 숙제다.

15

42

48

54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2.09.0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정보홍수 시대의 알찬 정책알리미

〈위클리 공감〉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 〈위클리 공감〉을 만나면 대한민국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물론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위클리 공감〉 173호(8월 29일 발행)를 펼쳐 보세요. 뜨거웠던 여름,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을 함께 안겨 준 런던에서 장애인올림픽이 열립니다. 〈위클리 공감〉에는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도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장애인올림픽 선수단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위클리 공감〉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이웃들에 주목해 왔습니다. 척추장애를 가진 몸으로 아프리카 오지에 기술교육을 해 온 공로로 올해 7월,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은 김해영씨는 〈위클리 공감〉 155호(4월 18일 발행)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로든 달려가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양팔 없는 미국인 태권도 유단자 쉴라 래지위츠씨, 훈련 중 순직한 남편 대신 4남매를 훌륭하게 키워 장한어머니상을 받은 김화주씨 등 〈위클리 공감〉에서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하면 무료로 보내 드려요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위클리 공감〉을 책장에 보관해 두세요. 여름철 휴가지를 고민할 무렵 〈위클리 공감〉 168호(7월 18일 발행)에는 국내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가득 실렸습니다. 바뀌는 정책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166호(7월 4일 발행) 기획특집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은 구체적인 정책 정보로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리는 '공감라운지'의 '알람' 코너나 '문화공감', 때마다 제공되는 행사 소식 및 정책 정보를 눈여겨봐 두면 풍성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를 따라가고 싶을 때도 〈위클리 공감〉은 도움이 됩니다. 170호(8월 1·8일 발행 합본호)의 기획특집 '제2중동붐'은 최근 중동 관련 정보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163호(6월 13일 발행)에서는 한·미, 한·EU, 한·중·일FTA와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나 기후 변화 등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정부 정책을 깊이 있게 알고 싶을 때도 〈위클리 공감〉을 읽으면 됩니다.

풍성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연재되는 '역사인물 읽기', '책 읽어주는 남자'를 모아 읽다 보면 지식의 폭이 한층 깊어집니다. '감성여행'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IT 오디세이'로 전문 지식까지 쌓아 보세요. G

〈위클리 공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 시스템도 오른쪽 상단마다 새겨져 있어 남녀노소 〈위클리 공감〉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클리공감 홈페이지 korea.kr/gonggam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2-2625-3294, jjsmall@korea.kr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13일(목) 오전까지 gonggam @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Weekly 공감〉**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를 읽고

'오색찬란'의 성공적 개최 자랑스러워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스포츠 강국의 면모뿐 아니라 문화 강국의 힘을 보여주는 축제가 열렸다는 사실을 〈위클리 공감〉에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요즘 한류가 뜨겁다고 하지만 대중문화에 국한돼 있어 아쉬웠는데 오색찬란을 통해 판소리 등 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니 참 기쁩니다.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을 재구성한 이자람씨의 공연처럼 세계인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전통문화공연의 유지, 발전을 통해 문화 강국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으면 합니다. **유경옥(53·주부·광주 광산구 우산동)**

가족 사랑의 날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

모든 내용이 유익했지만 그중 공감화제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편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바쁘다는 핑계로 평일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조차 하지 못했는데, 가족 간 대화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족의 날이 수요일인 줄도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수없이 응모를 했었는데 한번도 당첨이 되지 않아 이번에는 부족하지만 꼭 실어주셔서 가장의 체면을 살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비회(27·대학생·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알 림

제7회 한국공항공사 사진 공모전

한국공항공사가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 등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아름다운 사계절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다. 공항에서의 경험과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이미지 속에 사연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역사와 스토리가 묻어나는 공항의 과거 사진이나 여름 외 계절의 공항 사진을 공모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디지털, 아날로그 사진 모두 응모할 수 있으며 1인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 수 제한은 없다.

응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주제 | 공항의 사계(四季) 아름다운 공항
시상내역 | 대상 1명 상금 2백만원 외 15명 시상
응모일정 | 9월 20일까지
접수방법 | 디지털 카메라 사진– 공모전 홈페이지에 업로드
아날로그 사진– 등기우편으로 직접 송부
문의 | 사진 공모전 사무국 ☎070-8255-7758

Puzzle 공감퍼즐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9월 13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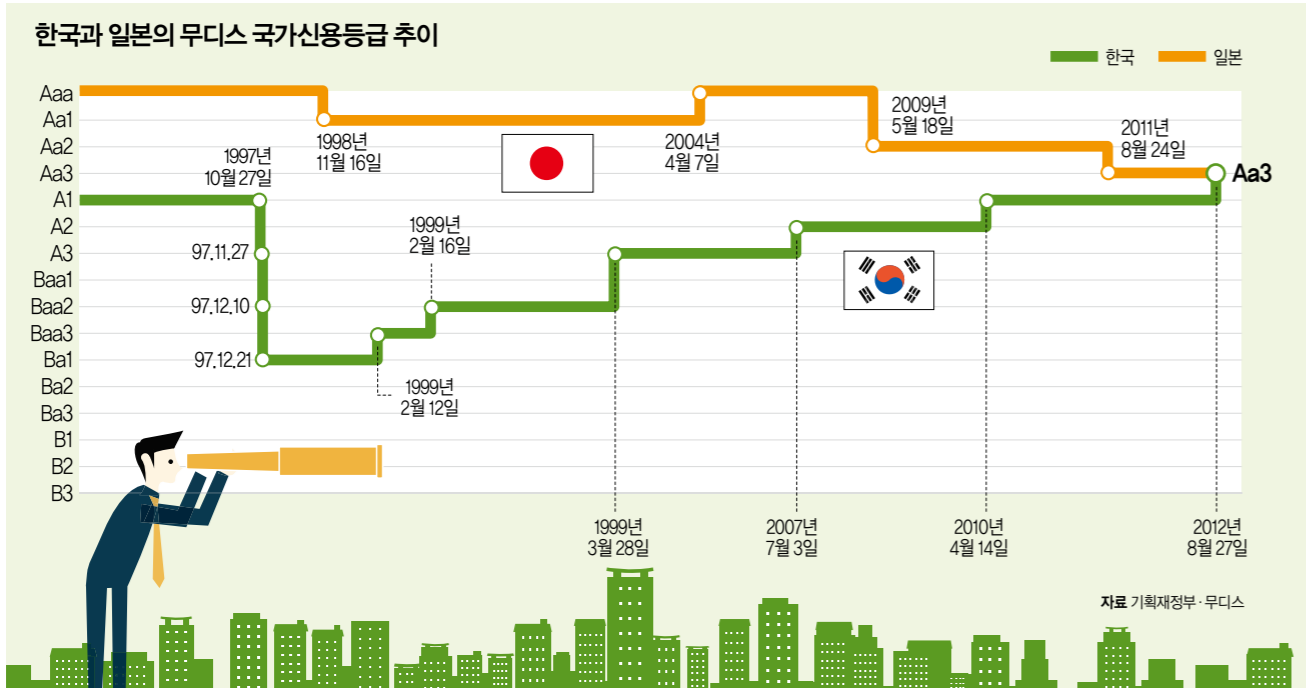
2.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본능적이죠.
3. "정부와 여당은 8월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과 이른바 '○○○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5. 이웃, 이웃 친구.
7.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 그 작용을 받는 서술 형식. =피동태.
9. 단풍으로 물든 가을 금강산을 뭐라고도 부르죠?

세 로

1. "'역동하는 혼'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리는 런던○○○올림픽에는 165개국 7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전을 펼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13개 종목 금메달 11개로 종합 순위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임금의 사위.
4. 땅속에 있는 물.
6. 우공(愚公)이 산을 옮겼다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된 말.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8. 루사, 매미, 곤파스, 볼라벤, 덴빈… 무엇의 이름일까요?

〈Weekly 공감〉 172호(8월 2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장모 **2** 오두막 **4** 금의환향 **6** 인하 **7** 태극기
세로 **1** 장학금 **2** 오향 **3** 막상막하 **5** 환골탈태 **6** 인기

〈Weekly 공감〉 172호 '공감 퍼즐' 당첨자
현혜·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신수용·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김오태·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표세명·강원 횡성군 강림면
장진·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자료 기획재정부·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더블A'로 상향조정

무디스, 사상 처음 Aa3로…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 평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8월 27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조정했다. 무디스의 이번 상향조정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Aa3는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사상 최고의 등급이다. 무디스의 이번 상향조정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사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선진국들마저 신용등급이 내려앉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올해 A레벨 국가 중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 무디스는 지난 6월 스페인의 등급을 A3에서 Baa3(부정적)로, 7월에는 이탈리아의 등급을 A3에서 Baa2(부정적)로 깎아내린 바 있다.

무디스가 불과 4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또다시 올린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무디스는 크게 4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재정건전성·수출경쟁력에 높은 점수

먼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우리 재정은 2010년 이래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위기 국면에서도 수출경쟁력을 무기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업률이 3.1퍼센트(6월 기준)에 머무는 등 노동시장도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향후에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이 완화된 것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해 단기외채 비중과 예대율이 낮아지는 등 국내 은행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신인도 향상은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국가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할 때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연간 4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자비용 감소는 국민들 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기준 2천7백억 달러의 외화표시채무에 붙는 가산금리가 약 15bp(0.15퍼센트) 인하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기관 신용등급 동반 상승 기대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재평가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통상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장학재단 등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과 연동돼 조정돼 왔다.

국내 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용등급이 올랐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부여받은 Aa3등급은 이전의 A1과는 불과 한 단계 차이지만 실제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체계에서 A레벨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A, Aa, Aaa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A와 Aa 이상 단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A는 신용도는 높지만 금전적 의무이행 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부여된다. 이에 비해 Aa 이상의 등급은 국가 채무를 갚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국가만이 받을 수 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A1에서 Aa3로의 조정은 단순히 한 등급 상향이 아니라 A레벨에서 Aa레벨로의 레벨업을 의미한다"며 "무디스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가 국가신용등급

구분	등급	Moody's	S&P	Fitch
투자등급	AAA(Aaa)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미국(–)[3],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AA+(Aa1)	홍콩(+)	미국(–), 프랑스(–)	홍콩
	AA (Aa2)		벨기에(–)	벨기에(–)
	AA–(Aa3)	한국, 사우디, 중국(+), 대만, 벨기에(–), 칠레, 일본	사우디, 일본(–), 중국, 대만	사우디
	A+(A1)		칠레(+)	한국(+), 중국, 칠레, 대만, 일본(–)
	A (A2)		한국	
	A–(A3)	남아공(–),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BBB+(Baa1)	러시아, 멕시코, 태국	이탈리아(–), 남아공(–), 아일랜드(–), 태국, 스페인(–)	남아공(–), 아일랜드(–)
	BBB (Baa2)	브라질(+),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태국
	BBB–(Baa3)	인도, 인도네시아, 스페인(–)	인도(–)	인도(–), 인도네시아
투기등급	BB+(Ba1)	터키(+),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필리핀
	BB (Ba2)	필리핀(+)	터키, 포르투갈(–)	
	BB–(Ba3)	포르투갈(–)	베트남	
	B+(B1)	베트남(–)		베트남, 이집트(–)
	B (B2)	이집트(–)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B–(B3)	아르헨티나		
	CCC+(Caa1)			
	CCC (Caa2)		그리스(–)	그리스
	CCC–(Caa3)			
	CC(Ca)			
	SD[4](C)	그리스		

주 괄호 안 등급은 무디스 기준, 국가 뒤 (–)는 부정적 등급 전망, (+)는 긍정적 등급전망, SD는 선택적 디폴트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S&P와 피치 등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곤두박질친 후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무디스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등급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고 등급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S&P와 피치의 경우엔 아직 외환위기 이전 등급에 미치지 못한다. S&P의 경우 10단계 하락 후 8단계 회복해 현재 A등급(안정적)이고 피치의 경우 12단계 하락 후 11단계 회복해 A+(긍정적) 등급에 머물러 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3가지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먼저 은행들의 대외자금 조달 안정성이 높아져야 한다. 공기업과 가계부채가 정부의 우발채무로 전이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상의 경쟁력과 장기성장 전망을 유지해야 한다. G

글·변형주 객원기자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재정건전성 유지 등 체질 강화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이렇게 빨리 상향조정되리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무디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예상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피치에 이어 지난 4월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한 단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향조정 시기는 예상을 앞질렀다. 통상 신용등급 전망 조정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등급을 올리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 국장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주요 선진국·신흥국의 경기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향상된 경제 체질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며 "타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대외건전성 등 튼튼한 경제여건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채 등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4조원이 순유출되었으나, 금년에는 14조원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도위험에 대한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CDS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 등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환율 등 주요 지표들도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입니까?

"우선, 재정건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세입을 확충하여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대외건전성도 높였습니다.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지속적인 외채관리를 통해 단기외채 비중을 2008년 말 47.2퍼센트에서 2012년 6월 말 33.8퍼센트로 크게 낮췄습니다. 외환보유액은 2008년 2천12억 달러에서 지난 7월 말 현재 3천1백44억 달러로 56퍼센트 늘어났습니다.

위기대응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유럽재정위기, 북한 관련 이슈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금융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보활동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외신, 신용평가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공유해 왔습니다."

향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공기업과 가계부채, 소비위축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향후 우리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디스도 금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 시 공기업과 가계의 부채, 유로존 위기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이 문제들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체질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 변형주 객원기자

외환위기 이전과 달라진 한국의 신용등급

	무디스	S&P	피치
외환위기 전	A1 (1997년 10월)	AA- (1997년 10월)	AA- (1997년 10월)
현재등급	Aa3 (2012년 8월)	A (2005년 7월)	A+ (2011년 11월)

자료 기획재정부

잇단 태풍으로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8월 31일 오전 광주 남구 대촌동 양촌마을에서 31사단 장병들이 파손된 비닐하우스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태풍 피해사실 확인 땐 복구비 우선 지급

농식품부, 생계구호금 조속지원 등 피해자 돕기에 적극 나서

태풍 '볼라벤'(BOLAVEN)의 피해가 제주 등 남부 지역과는 달리 수도권 지역은 당초 예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볼라벤의 뒤를 따라온 태풍 덴빈(TEMBIN)은 물폭탄을 남기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맹형규 본부장은 피해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국고 53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우피해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축·수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은 국고분 30억원,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피해가 국고지원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역)에는 2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서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과거에 비해 23일(30일→7일 이내) 앞당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예산 2백억원을 별도 확보해 예비비 승인절차 없이 조기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체 예비비 사용 절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피해서민에게 조기 지원하도록 했다.

국세청도 최장 9개월까지 세금 징수 유예

행정안전부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세도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기로 했으며,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시·군·구에서 피해를 확인하는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구호금과 재난복구비, 재해보험금 등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정전 피해규모가 큰 광주와 전라남도 등에 대해 복구장비 2천여 대를 투입하는 등 광역복구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도 최장 9개월까지 세금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손해보험사들도 태풍 피해를 본 고객에게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50퍼센트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흘간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지자체와 정부 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추석 전 2주 동안 배추와 쇠고기 등 1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 선박 등 적잖은 피해

기상청은 태풍 볼라벤이 북상할 때 지난 2000년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중 가장 위협적인 태풍이 될 것으로 발표했었다. 볼라벤은 중심기압 9백30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미터, 강풍이 부는 반경만 해도 5백50킬로미터에 달해, 위력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루사나 매미에 버금갈 정도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 태풍은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대형에서 중형으로, 강풍 반경도 3백30킬로미터가량으로 줄어들었다. 볼라벤의 뒤를 따라온 태풍 덴빈(TEMBIN)은 한반도 남부에 집중적으로 물폭탄을 쏟아부은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잇따른 두 차례 태풍으로 남해안 지역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6시 현재 태풍 덴빈으로 인한 사상자는 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8월 28일 오전 10시15분쯤 경남 사천시 신수도 연안에는 길이 2백70미터, 너비 40미터 7만7천4백58톤급 석탄 운반선이 두 동강이 난 채 강풍에 밀려 떠내려 왔다. 선박 안에는 한국인 선원 9명과 필리핀인 선원 9명 등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미(船尾) 조타실에 모여,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8시쯤 전남 신안군 암태면 선착장 앞바다에서는 부산 선적 1천5백 톤급 화물선이 좌초하면서 기관실 밑바닥이 갈라졌다. 해경은 1천5백 톤급 경비함정 3척을 급파해 배에 있던 선원 10명을 구조했다. 오전 9시쯤엔 전남 영암군 삼호면 현대삼호중공업 앞바다에서 피항하던 4백40톤급 선박이 강풍으로 침몰했다. 선원 6명은 옆에 있던 예인선에 구조됐다.

잇단 태풍은 수도권 이남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수도권에서의 피해는, 다행스럽게도 예상 밖이었다. 그 이면엔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붙이라"고 가르치며 휴교를 단행했다. 악화된 기상에 대비, 운전자들은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태풍의 진로와 피해상황을 공유했던 네티즌들의 노력도 한몫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하나는 강풍이 지속된 시간의 차이였다. 서울에서 순간적으로 분 바람의 최대 풍속은 30미터 안팎으로 비슷했지만 10분간 분 바람의 평균 풍속을 따지는 '최대 풍속'은 2010년의 곤파스가 초속 14미터로, 10.5미터의 볼라벤보다 훨씬 강했다. 강수량 차이도 컸다. 당초 수도권에 1백~1백50밀리미터의 호우가 예상됐지만, 볼라벤의 실제 강수량은 0.5~40밀리미터에 그쳤다. 곤파스의 40~1백50밀리미터보다 적었던 것이다. G

글·이범진 기자

문의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02-2100-5433, 각 시도청 일자리창출과

태풍 대비 요령

붕괴 위험 국도·지방도로는 운전 자제를

- 태풍이 통과할 때에는 태풍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루 평균 강수량이 1백밀리미터를 넘거나 시간당 강수량이 2백밀리미터를 넘어서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 산간계곡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토사 유실 위험이 높은 만큼,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 무릎 이상 빠지는 경우에는 물을 가로질러 건너지 말아야 하며, 물이 불어난 도로에는 차를 몰고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 아파트 유리창 등에는 젖은 신문지를 붙여놓거나 테이프를 십자 형태로 붙여서 장력을 높여놓으면 강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을 막을 수 있다.
- 태풍 통과 후에는 침수됐던 음식물은 먹지 말고 물은 마시기 전에 위해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하수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고, 습기가 찬 지역에서는 전기기구를 다루지 않는 게 좋다.
- 지반 침식·붕괴 위험이 있는 국도나 지방도로에서는 가급적 운전을 삼가야 한다.

1887년 일본 지리학자 오카무라 마쓰다로가 일본 문부성 출판 허가를 받아 펴낸 지리 교과서 〈신찬지지(新撰地誌)〉에 실린 '일본총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뜻하는 가로줄 내에 포함돼 있다. 확대 부분 속 붉은 원으로 표시된 섬이 독도.

125년 전 日교과서에도 "독도는 조선 땅"

독립기념관 공개… '강제 편입' 직후 펴낸 1905년 책에도 영토표시 없어

일본이 러·일전쟁 때인 1905년 독도를 강제 편입할 당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본 국정 교과서가 공개됐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이 1905년까지도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기술하지 않은 근대 초·중등 일본 지리 교과서 5점과 학생 및 일반인용 지리부도 2점을 발굴, 28일 공개했다.

독립기념관이 경술국치일(8월 29일) 하루 전인 28일 공개한 자료들은 1880~1900년대 초반 일본 초·중등학생용 지리 교과서 5점과 학생 및 일반인용 지리부도 2점으로, 이는 모두 '독도가 일본의 역사적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이 중 일본 문부성이 1905년 3월 20일 발행한 〈소학지리용신지도(小學地理用新地圖)〉의 '대일본제국전도'는 일본 북부 시마(千島) 열도까지 꼼꼼하게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나 독도는 들어있지 않았다. 이 책 지리 통계표에도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1905년 이전 일본 문부성 검정 교과서에 독도가 조선 땅으로 표시된 자료는 동북아재단 등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일본 문부성이 제작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1905년 발행 〈소학지리용신지도〉에도 빠져

이날 공개된 또 다른 자료인 〈신찬지지(新撰地誌)〉 2권에 수록된 '일본총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됐다. 이 책은 1887년 오카무라 마쓰다로가 일본 문부성 판권 허가를 받아 펴낸 교과서다.

자료를 발굴한 독립기념관의 윤소영 연구위원은 "1905년에 나온 일본 국정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독도를 강제 편입하기 직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독립기념관이 공개한 〈소학지리용신지도〉는 1905년 발행된 것이다. 저작은 문부성, 편찬은 '지리역사연구회'로 돼 있다. 맨 앞면 '대일본제국전도'에 보면 류큐(오키나와)의 부속 섬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의 시마열도까지 꼼꼼히 일본의 영토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독도는 빠져 있다.

울릉도·독도를 조선에 속하는 영토로 표시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 편입했으나 그전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며 '역사적 고유 영토론'을 펴 왔다. 〈소학지리용신지도〉의 등장은 이 같은 일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다른 자료인 1887년 〈신찬지지〉도 눈길을 끈다. 오카무라 마쓰다로라는 개인이 펴냈지만 일본 문부성 판권 허가를 받아 시중에 교과서로 쓰였다. 제2권 '일본총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 속하는 가로줄 표시가 되어 있고, 오키섬을 포함한 나머지 일본 영토는 별도 가로줄로 그어져 있다.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일본 정부가 3년 전부터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시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일제가 독도를 강제 편입한 1905년 이전에 나온 국정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1902년 대한제국 '내부(內部·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울도군(현재의 울릉군으로 독도를 관할)의 '절목(행정 세부규칙)'도 대한제국 시기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다.

경북 울릉군이 한아문화연구소(소장 유미림)로부터 제공받아 8월 17일 공개한 이 자료에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사람에게 세금 10퍼센트를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은 물건값에 따라 1퍼센트를 거둬 경비에 보태도록 했다. '출입하는 화물'은 주로 일본인의 수출화물에 부과한 세금이다. 또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절목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절목에는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 인장이 찍혀 있다. 강치는 독도에서만 포획되던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현재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절목은 1905년 을사늑약 이전의 것으로서, 우리가 독도를 과거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한 점을 입증할 또 하나의 사료라고 평가된다.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은 "1904~1905년 울릉도에 사는 일본인들이 강치를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이 일본 외무성 기록에도 남아 있다"며 "이는 일본인들이 울도군에 세금을 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1905년부터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 편입했다"고 주장해 온 일본의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이 허구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 G

글·이범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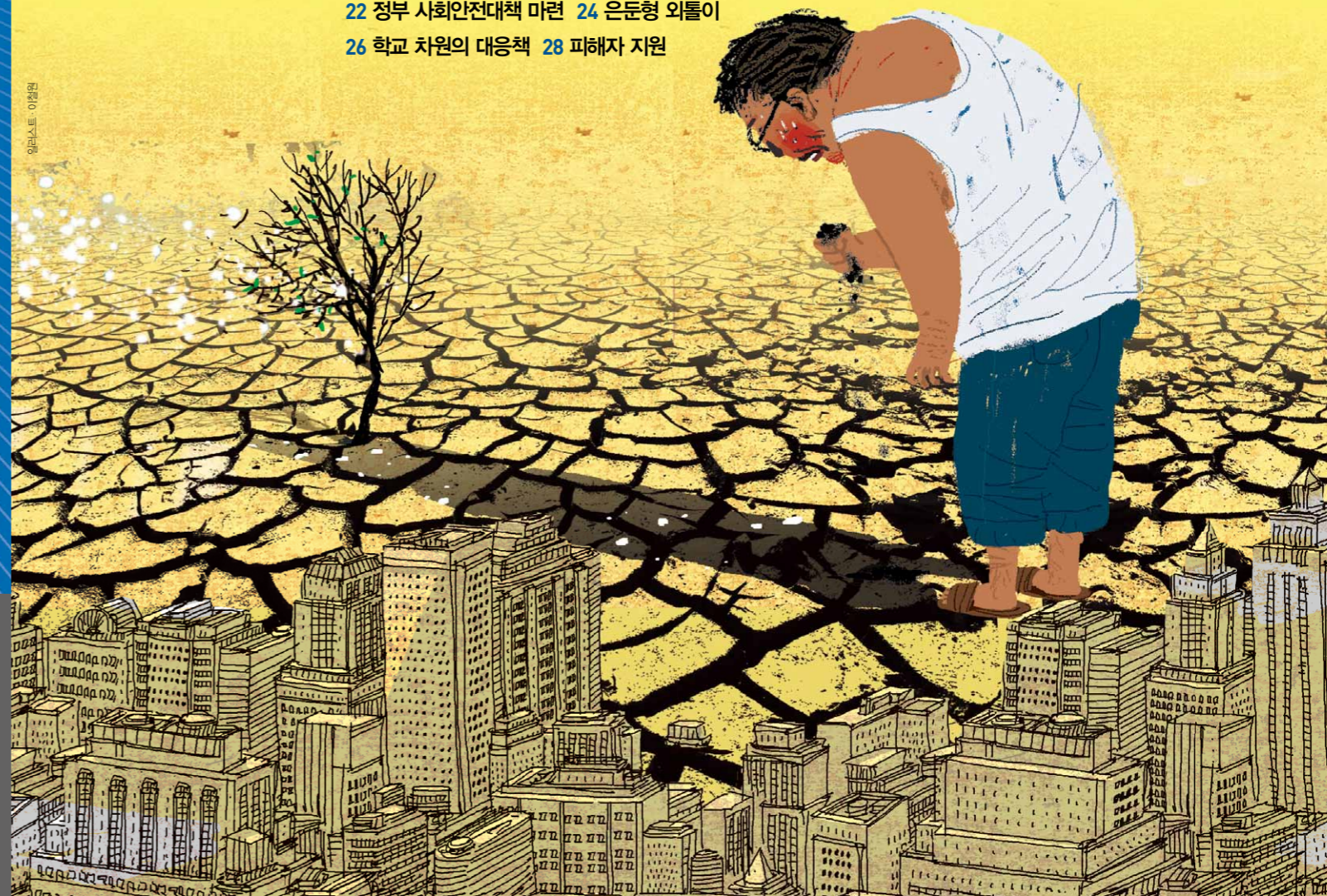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고유영토설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자료

자료이름	내용	저자	발행연도
소학지리용신지도(小學地理用新地圖)	책 맨 마지막 지리 통계표 (II) 본방성립국토(本邦成立國土) 편을 보면 오대섬(五大島國)에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 타이완, 여러 도서로 시마열도, 류큐제도 등을 포함한 열도·제도 및 쓰시마, 오키섬 등을 일반 주요섬을 표기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음.	문부성 제작	1905년
신찬지지(新撰地誌) 1卷	본문 내에 수록된 〈타이완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에 속하는 섬으로 가로줄 표기가 되어 있고, 오키섬을 포함한 나머지 일본 영토가 별도로 가로줄이 그어져 있어 독도와 구별되어 표시돼 있음.	오카무라 마쓰다로 편찬	1887년
일본사요(日本史要) 巻上	본문 내 수록된 〈대일본제국전도〉에 쓰시마, 오키나와 등 주변 군도를 모두 표기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표기는 없음. 본문 내용 안에도 독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문부성 검정	1886년
소학지리(小學地理) 1·2巻	본문 내 수록된 일본전도에는 일본의 영토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오키섬 외에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식민화한 타이완도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음. 이 책 권 2에 오키섬 부근 상세 지도가 수록되어 있으나,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음.	문부성 검정	1900년
일본지지요략(日本地誌要略) 1·4巻	제1권에 수록된 일본전도에는 오키섬까지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고 제4권의 산인도(山陰道) 항목에도 오키섬까지의 상세지도가 수록되어 있음.	오오츠키 슈지 저	1878년
분방상밀 일본지도(分邦詳密日本地圖)	이 지도책 역시 산인도 항목에 오키섬까지만 영토로 표시되어 있음.	아오키 쓰네사부로 저	1888년
표준일본지도(標準日本地圖)	울릉도는 "경상북도", 독도는 "시마네(島根)"라는 소속관계가 명시되어 있음. 위 〈분방상밀 일본지도〉와 〈표준일본지도〉를 비교, 1888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영토의식이 생긴 1905년 이후 제작되는 지도 등에 독도(竹島)를 표기하고 있음.	도쿄 개성관 제작	1925년

자료 독립기념관

한국 사회 중요한 숙제 '묻지마 범죄' 사슬 끊자

무차별 폭행, 살인, 성범죄 등 짧은 기간에 연이어 터진 강력범죄들이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모르는 이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묻지마 범죄'다. 행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사람들…. 무엇이 이들을 괴물로 만든 걸까. 전문가들은 해소하지 못하고 내부에 쌓아 놓은 '좌절'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경쟁 지향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즉 우리 모두 잠재적인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에 안겨진 중요한 숙제다.

일러스트 · 이철원

재소자·출소자 사회적응 지원 강화한다

성범죄자 심리치료 높이고 국민들 정신건강검진도 실시

강력 범죄들이 민생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한 '묻지마 범죄'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성범죄도 심각하다. 지난 8월 20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성폭행 전과자가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열흘 뒤에는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 1학년 여학생이 집에서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대증요법이 아닌 보다 장기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있다.

지난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이모(27)씨는 귀가 중이던 장모(여·40)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씨는 빚 1천2백만원을 지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장씨에게 분노를 쏟아부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살하려고 며칠 전부터 흉기를 갖고 다녔는데 술김에 누군가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말했다.

8월 18일에는 1호선 의정부역 플랫폼에서 유모(39)씨가 10여 분간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 유씨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최근 10여 년 동안 뚜렷한 직업 없이 일용직 건설 노동자 일을 전전하며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가족해체로 사회가 돌봐야 할 대상자 늘어

8월 21일 수원에서는 강모(39)씨가 한 유흥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후, 주점과 인근 단독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4월에는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고, 7월 16일에는 경남 통영에서 김모씨가 이웃에 사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8월 20일에는 성폭행 전과자 서모(42)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8월 27일 대전 서구 샘머리공원에서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훈련'이 열렸다. 경찰들이 가상 상황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범인을 제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배경에 경쟁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분노 축적,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 가족 해체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예전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가족 관계 안에서 잘 해결이 되거나 치유되지 않아도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돌봐주곤 했지만, 가족이 해체가 되면서 사회가 이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히키코모리'라고도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과의 안석균 교수는 "다른 사람이 내 욕을 할까 봐 집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에서 공격할 수 있겠느냐"며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과 은둔형 외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본질적인 대책"

성범죄의 원인으로는 인터넷만 접속하면 언제든 음란물 등 유해 매체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기 쉬워진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와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엄벌주의'만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양형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묻지마 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낙오자들을 위한 완충장치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개인뿐 아니라 학교, 기업,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곽금주 교수는 "여의도 사건의 경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어느 날 폭발한 것인데, 이를 미국 버전으로 바꾸면 직장에 들어가 총기 난사를 하는 것쯤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직장 내 스트레스 문제를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많은 전문가가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수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덕, 윤리 등의 교과 과정 안에 인성교육을 녹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성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로 시간을 내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출소자 일자리 제공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재소자와 출소자의 사회 적응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G

글·하주희 기자

지난해 7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38킬로미터 떨어진 우토야 섬의 노동당 청소년 여름 캠프장에서 광란의 총기난사 참사가 일어났다. 부상당한 청소년들이 구조대와 함께 보트를 타고 우토야 섬을 빠져나오고 있다.

외국의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

일본의 도리마(通り魔) 범죄

1998년부터 일본에서는 도리마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도리마는 '길어다니는 악마'라는 뜻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2008년 6월에 도쿄에서 일어난 '아키하바라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생활을 이어가던 20대 남성이 아키하바라 길거리에서 트럭과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행인을 공격했다. 그 결과 8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다쳤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미국의 묻지마 범죄는 1990년대 들어 급증했다. 1960년대에는 전체 범죄의 6%를 차지했지만 1990년대에는 39%로 늘어났다. 경쟁 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 환경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2007년 일어난 '버지니아텍 총기 난사 사건'은 최악의 묻지마 범죄 중 하나로 기억된다. 버지니아텍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조승희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8세 때 부모를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조승희는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신분열증도 앓고 있었다고 훗날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르웨이의 총기 난사 사건

2011년 7월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77명이 죽었다. 범인은 극우 성향을 보이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폭탄 테러를 저지른 후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인근의 섬으로 이동해 총기를 난사했다. 지난 8월 24일 노르웨이 오슬로 법원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1년형을 선고했다.

묻지마 범죄자 불만… 물어볼 채널 만들자

성범죄자는 제대로 교정·교화할 시스템 갖춰야

'모든 범죄에는 동기가 있다.' 범죄 수사의 기본 명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일련의 강력 범죄들은 이 기본 명제에 해당이 안 되는 범죄로 여겨진다. 동기가 없다는 의미의 '묻지마 범죄'로 일컬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유가 없는 범죄는 결코 없다고 말한다.

일러스트·이철원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사건의 흉악함에만 주목하지 말고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묻지마 범죄가 어떤 범죄를 뜻하는지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연구원은 "묻지마 범죄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라며 "묻지마 범죄의 개념 규정은 모호하지만 가장 근접한 설명은 '내재된 사회적 불만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출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증오범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증오범죄는 특정 성(sex)이나 특정 종교, 장애인, 외국인 등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범죄를 뜻하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마치 사회불만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런 식으로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며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경우 묻지마가 아니라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로 분류해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도 명확한 원인이 있는 범죄이므로 '묻지마'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

스트레스·분노 원인을 사회 전체에 돌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격화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 환경 변화가 묻지마 범죄의 원인 중 하나라는 말이다. 미국의 범죄학자 세이(Hsieh)는 실업, 가난, 경제적 불평등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누가 희생자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범죄에서 보호막 없는 서민층,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희생된다는 점이 역설적"이라며 "실제 범행은 자신과 비슷한 약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면서도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주장하는 것은, 죄책감을 덜어내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심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형민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많은 살인사건이 아는 사이, 즉 면식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좌절됐을 때 그 책임을 상대에게 돌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스트레스, 분노의 책임을 사회 전체로 돌리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잃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직장이나 가족, 친구 등 '잃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사소한 촉발 요인을 가지고도 폭력을 저지른다는 말이다.

이수정 교수는 '정신과적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정신분열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피해 의식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성격 장애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모른다"며 "버지니아텍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조승희는 성격 장애에 정신분열 증상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묻지마 범죄 대책

가족·친구 등 사회적 유대관계 복원 도와야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급하게 '대증적인 조치'만 취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불만을 가진 채 틀어박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맺지 않는 사람은 밖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의 설명이다.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혼자 격리되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음란물만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겠지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해선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곽금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는 모든 기업과 학교에 상담가가 있다"며 "언제든지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곽 교수의 설명이다.

"동료들과 상사 욕을 하면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런 것이 사회적 완충작용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해요. 보통, 증세가 심해지면 상담가를 안 찾아갑니다. 처음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불안을 느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핫라인' 같은 창구가 있어야 해요. 외국은 많은 경우 개인상담가를 두고 찾아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지역사회나 기업,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양형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징역 몇 년 감인지 미리 생각

조선DB

지난해 11월 강원도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열린 '출소 예정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 원주교도소 취업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6개 업체 대표 등 10개 업체가 재소자들과 구인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

올해 일어난 주요 강력사건 발생 일지

- **3월5일** 서울 마포구에서 아버지(29)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80일된 딸의 얼굴과 가슴, 목, 배 등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함.
- **4월1일** 경기도 수원에서 조선족 오원춘(42)이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 훼손.
- **5월25일** 서울 강서구에서 택배운송회사 대표 박모(43)씨가 회사 자금 문제로 다투다 부하 직원 최모(45)씨를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한 뒤 암매장.
- **7월 12일** 제주 올레길에서 주민 강모(46)씨가 산책하던 여성 살해.
- **7월 16일** 경남 통영시에서 김모(44)씨가 이웃의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
- **8월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모(27)씨가 귀가 중이던 조선족 장모(40·여)씨의 등과 목 등을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체포.
- **8월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유모(39)씨가 불특정 승객을 상대로 흉기 휘둘러 8명 부상.
- **8월20일** 성폭행 전과자 서모(42)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
- **8월20일** 최모(41·여)씨가 오빠 집인 서울 송파구 다가구 주택에서 언니와 올케, 7살짜리 조카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 부상.
- **8월21일** 강모(39)씨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1명 사망, 4명 부상.
- **8월22일** 김모(30)씨가 서울 여의도에서 전 직장동료와 행인에게 무차별 흉기 휘둘러 4명 부상.
- **8월30일** 유모(31)씨가 친누나의 딸인 초등학생 6학년 A양을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로 구속.
- **8월30일**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이웃 사람에 의해 집에서 자다가 납치당해 성폭행을 당함.

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놓고, '아무나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곽 교수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이므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성범죄 원인

성·여성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 깔려 있어

묻지마 범죄뿐 아니라 빈번히 일어나는 강간 등 성범죄도 문제다. 성범죄자들은 '성욕'이 범죄의 이유였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곽대경 교수는 "성 충동은 원인의 일부"라며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라고 했다.

강간은 '분노 강간'과 '권력 강간'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노 강간은 여성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다. 주로 어렸을 때 어머니나 다른 여성과 관련해 학대를 받았거나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자라서 힘이 생기면 분노를 제3의 대상에게 폭발시키는 식이다.

권력 강간은 성폭력을 저지르면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사고구조를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성범죄 유형이다. 범죄자들은 '성욕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과 성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8월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신용품 전문업체를 찾은 시민이 주인으로부터 종류 및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성범죄 대책

인지행동치료 통해 양심의 가책 일깨워야

최근 흉포한 성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강화할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처벌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수정 교수는 "전자발찌나 약물요법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장기투자'"라며 "영원히 성범죄자를 격리할 수 없다면 이들이 정말 제대로 교정·교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장기투자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지선 연구원은 "처벌은 범죄를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현재 성폭력 범죄자와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 우편고지제도, 전자발찌 등 강력한 사후 제지수단들은 어떤 경우에는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범죄자를 사형시키지 않는 한 언젠가는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감시만 하고 사회에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오히려 더 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이다.

곽대경 교수는 "화학요법으로 성욕을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여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것"이라고 했다. 곽 교수의 설명이다.

"성 범죄자의 경우 여성이나 아동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죠. 이런 사고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결코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성범죄는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색된 해결책 중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저지른 것인지 알게 하는 방법이다.

전자발찌 경우, 자신의 행적을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고, 범죄 사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이를 유치원 차에 태워 보내고 집에 들어온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전자발찌 때문에 망가졌다'는 등 전자발찌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하곤 했다고 한다.

정부는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G

글·하주희 기자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국민께 죄송"

이명박 대통령 사과… "치안강화를 국정 최우선에 두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31일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주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족에게 위로를 보낸다. 정부를 대신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치안강화를 국정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월 31일 오전 전남 나주 초등학생 1학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국민께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가족에게도 위로를 보낸다"면서 "정부를 대신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나주 초등생 A양은 8월 30일 새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자다가 이불에 둘러싸인 채 괴한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했다. 경찰은 이웃에 사는 고모(23)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묻지마 범죄' 실질적 대응책 내년 예산 반영

이 대통령은 "태풍 피해복구가 되기 전에 피해가 컸던 나주에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에겐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성범죄, 묻지마 범죄가 학교 앞, 길거리에서 발생했지만, 이젠 가정에까지 들어온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세 한아름 양이 40대 이웃 남성에게 납치,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 서민 생활이 힘든데 민생치안마저 불안하면 국민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라며 "형편이 다소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사회안전 불안은 개개인의 행복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선 경찰들이 정말 국민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한다는 정신적 재무장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복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치안에서 기본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면서 "근본적 대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에서는 음란물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갖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서 보고가 있었지만 경찰청의 인력보강 문제, 민생치안 예산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G

글·이상훈 기자

‘전자발찌 경보’ 초(秒)단위 대응 추진

위치추적법 개정… 매달 4~5차례 면담 등 밀착감독 강화

정부는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8월 27일 열어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매달 4~5회 면담을 갖고 이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실시간으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는 CCTV 4천9백27개 연내 확충, 출소자 취업 프로그램 강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살인사건,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상대로 매달 4~5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하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추진

김황식 국무총리는 8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만여 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 기동대, 전·의경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취약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범죄 취약지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CCTV 4천9백27개, 2013년 이후 1만8천8백87개를 확충해 방범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매달 4~5회 면담을 갖고 이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또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등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각종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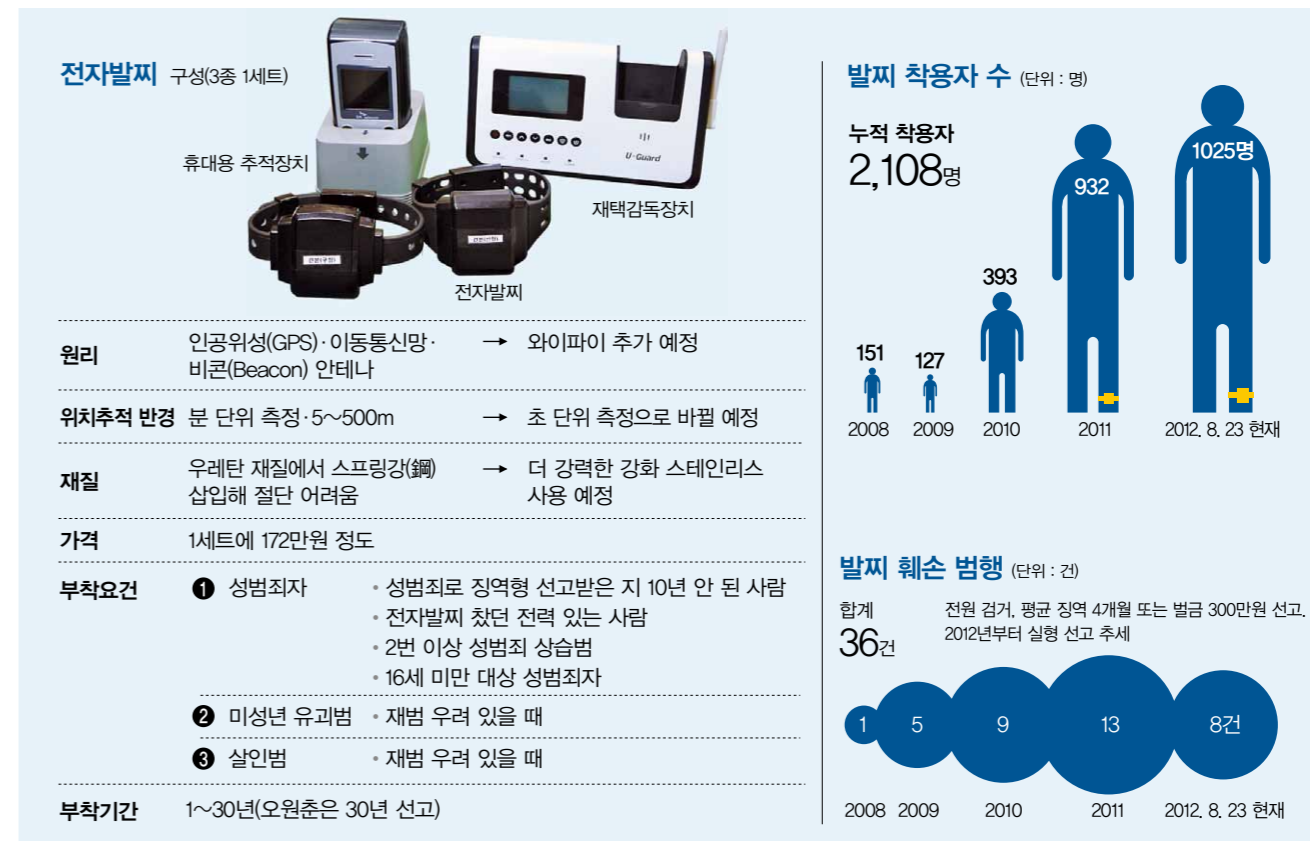
또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파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다각적인 예방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경보에 3백65일 24시간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묻지마 범죄’는 범행동기가 분명치 않고, 범행수법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묻지마 범죄’ 유형 데이터베이스 추진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묻지마 범죄의 유형, 범행동기, 수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묻지마 범죄유형 분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묻지마 범죄 수사에 대한 외국의 선진기법을 소개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전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 피의자 검거 및 증거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 심리치료를 강화하고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간접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에 대해 법원과 협의를 통해 치료프로그램 부과시간을 현실화하고 심리전문가와 프로그램을 보완해 치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성폭력사범 집중교육교도소를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일반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본교육 이수시간이 40시간에서 1백시간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우선’이란 판단에 따라 출소자 취업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2012년 4천명에서 2013년 5천명으로 확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및 각 지부에 취업 전담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정부는 전북 전주에 영농기술센터, 경남 창원에 용접기능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는 등 권역별 출소자 전문처우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관계가 해체된 출소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가족캠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관리 및 면담을 갖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5곳 새로 설치

정부는 이 밖에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회부적응자, 알코올 또는 마약중독자 같은 사회소외자들이 원만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범부처 종합대책 등을 연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취약아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3천5백 곳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를 2013년까지 3천7백42개소로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1곳과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5곳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경찰인력 1천2백명을 증원하고 출소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9억원, 성폭력사범 교육에 1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G

글·이범진 기자

민생치안확보 사회대책 주요내용

민생 치안 강화	·성폭력 우범자 특별점검 실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강화 ·묻지마 범죄 수사역량 강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강력범죄 예방활동 적극 전개 ·음란물 단속 강화
재소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강화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출소자 일자리 제공 사업 확대 ·재소자의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및 ‘직업훈련체험센터’ 설립 ·출소(예정)자 가족지원 사업 도입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한 치료 강화
사회소외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부적응자 등 중독종합대책 마련 ·긴급복지 강화 ·재범 우려자 정신건강 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돌봄인프라 강화

일러스트 · 이형렬

사회부적응자들… "묻지마 범죄와는 별개"

정신분열증 환자인 반사회적 외톨이와 동일시하면 안 돼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는 일본에서 건너온 신조어다. 가족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으면서 6개월 이상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지내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들은 '폭력성이 낮고 여리며 예의가 바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은둔형 외톨이'를 '묻지마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 언론은 범인들의 공통점이 세상과 연결되기를 거부한 채 누적된 분노를 범죄로 표출한 사회적 부적응자들이라는 분석과 함께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범죄자'라는 인식이 굳어져 가고 있다.

상담심리학자나 정신과 전문의들은 "은둔형 외톨이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보다 약하고 여린 사람들"이라며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 숨어 지내는 이들이 어떻게 남을 해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여인중 동남정신과 원장은 오래전부터 일본을 왕래하며 '은둔형 외톨이'를 연구한 이 분야 전문가다. 그는 2005년 정부 용역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진행한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의 선임연구원이자 필진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일본 히키코모리부모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강연을 해오고 있기도 하다.

여 원장은 "최근 일본에서는 '일반인은 반사회적 범죄 확률이 높고, 히키코모리는 비사회적 범죄 확률이 높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비사회적 범죄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일컫는다.

생산성 없고 혼자 지내는 것 힘들어 해

"은둔형 외톨이는 외부인은 물론 가족과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자극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채 홀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지요. 스스로 겪은 좌절이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분노나 적개심 같은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답답한 마음에 가족 중 누군가가 자꾸 자극을 하면 감정적으로 욱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집 밖 출입이 없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 접촉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좁은 의미, 즉 의학적 진단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는 여기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생산성이 없어야 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 원장은 "방 안에 틀어박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혼자 지내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그냥 외톨이일 뿐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그냥 삶의 방식이 독특할 뿐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외톨이를 창의적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반사회적 외톨이 등으로 구분한다. 창의적 외톨이는 글을 쓰거나 발명을 하는 등 어떤 일에 몰두하느라 외부와 접촉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반사회적 외톨이는 실패나 좌절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 돌리며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키워가는 사람을 이른다. 여 원장은 "반사회적 외톨이의 경우 정신분열증 환자가 많다"고 말한다.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와 반사회적 외톨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 · 주위의 도움 있으면 치료 가능

여 원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전문가나 주위의 도움이 있을 경우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이들"이라며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무서워하거나 멀리할 경우 이들이 사회로 돌아오는 길은 영원히 봉쇄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은둔형 외톨이는 어떤 경우 발생할까. 2005년 청소년위원회가 연구 발표한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에 따르면 다음 3가지 요인으로 압축된다.

첫째, 부모의 과잉보호나 과잉통제, 모자밀착 등 부적절한 양육방식에서 오는 가족 요인이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의존적이고 미성숙하며 자생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둘째, 왕따나 폭력 혹은 우울증 등 정서적인 문제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경우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왕따나 폭력은 고등학교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에게 학교 생활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한 우울증은 무력감과 의욕상실로 이어져 대인공포증을 갖게 한다고 한다.

셋째, 급속화된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주의와 경쟁주의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지나친 개인주의는 학력지상주의를 만들었고, 또래 관계보다는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서 남보다 나은 월급을 받아야 행복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아이=착한 아이'라는 공식이 주입된 셈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재능을 보이지 못하는 아이들은 일찌감치 불효자, 사회로부터의 예비낙오자라는 낙인을 받았다.

문제는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진단이나 치료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여 원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병원을 찾는 일이 없는데다 증상이 정신분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진단은 물론 치료 또한 어렵다"고 말한다.

정신분열 오진 가능성…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상대한 은둔형 외톨이가 총 2백명에 불과합니다. 주로 부모 손에 이끌려 반강제로 병원에 오거나 부모의 부탁으로 현장에 출동해 겨우 진료한 환자들이죠. 대부분은 자극하지 않으면 집 안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낫겠지 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병원을 찾는다 해도 개인적 성향에 따른 일종의 성격장애라서 특별한 진단법이나 치료법이 없습니다. 일반 병원을 찾을 경우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기 십상이지요. 정신분열증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망상이나 환청 등 뚜렷한 증상이 있었지만 요즘은 별로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치료법이 발달돼 있는 일본은 정부가 지원해 전국에 60여 개의 히키코모리 전문치료 시설이 있다고 한다. 여 원장은 "일본은 히키코모리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연간 11억 엔씩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G

글 · 서철인 기자

조선DB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은 '생명의 전화'와 함께하는 청소년들이 2012년 8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학교폭력은 인성교육 통한 예방이 최선

학부모와 함께하는 상담·밥상머리교육·봉사활동이 효과적

청소년 범죄·자살·성폭행·따돌림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인성(人性)교육'이다.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청소년 범죄는 우리가 학교와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방치한 대가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남의 탓'만 하며 인성교육을 미루기만 할 때가 아니다. 일선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올바른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서울 경신중학교 고광삼 생활지도부장은 자신이 20년 전 처음 교편을 잡을 때와 지금의 학생들을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차이를 느낀다고 했다. 그는 “2000년 이후 우리 교육 현장은 학생의 권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해왔다”며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점점 힘들다”고 말했다.

“요즘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육현장에서 이런 몰상식한 일은 후진국이나 선진국 어느 쪽에서도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또한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예전에는 겪지 못하던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특히 폭력성, 우울증, 주의력 결핍 등 정신건강 차원)을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전문화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 양서중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김서희 교사는 “학생 상담을 해보면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 청소년 문제의 원인 대부분이 가정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상담 못지않게 학부모 상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폭력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가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전문용어로 '관계 폭력'이라고 하는데,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형태의 폭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친구한테 관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불안 환경서 자라면 친구에게 폭력적

김 교사는 “학교폭력은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라며 “그래서 학생 상담과 더불어 학생의 부모와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학부모인 양홍준씨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5학년인 아들 셋을 두고 있다. 그는 우리의 전통 가정교육 방식인 일명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녀들에게 일체의 사교육도 시키지 않고, 유치원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독서를 많이 하게 하고, 하루에 20~30분씩 꾸준하게 밥상머리 토론을 해왔다는 것이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면서 아이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저학년 때는 아이들 성적이 다소 처지는 것 같았는데, 5~6학년이 되니까 금방 상위권으로 오르더군요. 큰아이가 각종 토론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을 보고 저의 교육 방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6년간 교직에 몸담은 경기도 오산의 원일초등학교 정진남 교사는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커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며 “교사 경험상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정 교사는 10년째 학생들과 지역의 중증장애인 시설이나 양로원 등을 찾아가는 '어울림 봉사단'을 이끌고 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대학원장은 “현재의 묻지마 범죄나 학교폭력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치르는 일종의 사회적인 대가”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업화에 따른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선진국들이 이미 겪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후발 개발도상국의 이점 중의 하나는 선진국이 앞서 겪은 각종 사회·경제의 문제점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이 이미 겪은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천 원장은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병리적인 혼란 중 상당수가 인터넷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긴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어느 선진국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각성하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G

글·이상흔 기자

9월 3~8일 특별생방송 등 실시

'인성교육이 진정한 실력이다'

조선DB

지난 7월 24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출범했다. 인실련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주도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 단체로 재계, 종교계, 교육계를 비롯, 1백6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인실련은 선언문에서 “학력과 성적 지상주의로 흐른 우리 학교 교육의 현실을 반성하고, 인성과 감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학교뿐 아니라, 가정, 기업,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실련은 오는 9월 4일 인성교육 비전 선포식과 함께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실련의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주제를 걸고 인성교육 실천주간(9월 3~8일)을 마련했다.

주요 관련 행사로는 ▲교과부 장관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1일 체험 ▲KBS 학교 폭력예방 특별생방송 ▲인실련, 현판식 및 인성교육 비전 선포식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안건보고 ▲인성교육 청람포럼 ▲밥상머리교육 길거리 홍보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수업 공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부·삼익악기·충남 교육청 MOU ▲인성교육 관련 범부처 공무원 대상 학부모 교육 ▲밥상머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부·풀무원·평생교육진흥원 MOU 등이 마련됐다.

교과부는 인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실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마음의 상처 보듬자

최대 8백만원까지 치료비와 사망 땐 유족구조금도 지급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를 입을 줄 몰랐다"고 말한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 피해의 후유증은 매우 크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에서 신체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밤만 되면 김모(25)씨는 악몽에 시달렸다.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밖으로 발을 내딛으면 흉기로 위협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을 겪고 난 이후 생긴 증상이었다. 같은 고시원에 살던 정모(32)씨가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유독가스를 피해 밖으로 나오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이다.

다행히 정씨의 흉기를 피해가기는 했지만 김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다. 김씨의 소식을 전해 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전문기관 '스마일센터'에서 2주일간 입소치료를 받도록 했다.

묻지마 범죄 같은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는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적·심리적 피해는 오랜 시간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을 괴롭힌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5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일러스트 · 유현호

스마일센터에서 집중심리치료 가능

2008년에는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묶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2010년에는 민간단체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설립돼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이 시작됐다. 2011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면서 벌칙금 등으로 거둔 국가 수익의 일부를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활용하게 됐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주로 경제적 지원에 힘을 쓰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 상담사를 파견해 피해 내용과 피해자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한다. 최대 8백만원까지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0년 7월 개소한 스마일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스마일센터 김태경 센터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게 된다"며 "만약 거주지가 불안정하거나 집중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내 임시주거시설에 2주 정도 입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묻지마 범죄는 특히 심리적 후유증을 크게 남기는 범죄다.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경제적 지원에 밀려 소홀해지기 쉬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아픔을 위로한다.

민간 차원의 봉사·모금활동도 활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류호선 사무차장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0~12회 정도 심리상담이 이뤄진다"며 "그동안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요청해 오면 상담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이상욱 회장은 "뉴스로만 접하다 보면 잊기 쉬운 일이지만,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자가 될줄 몰랐다'고 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피해자 지원 활동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하이코바(HiKOVA)' 봉사단은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봉사단을 꾸려온 신한은행은 이마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9월 1일부터 '범죄 피해자를 돕는 영수증 모금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지역 19개 이마트에 마련된 희망마일리지함이나 무인적립기, 광진·동대문 등 신한은행 동부본부 35개 지점의 모금함, 광진·수서·동작·강서·중랑경찰서 모금함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 금액의 0.5퍼센트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G

글·김효정 기자

전국피해자구호 ☎1577-1295, www.kcva.or.kr
한국피해자지원협회 ☎1577-9517, www.trykova.org
스마일센터 02-473-1295, resmile.or.kr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이상욱 회장

"피해자 지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2010년 설립 이후 한결같이 강조해 온 것이다. 협회에 소속된 전문 상담사들은 범죄 피해가 발생한 곳에 먼저 찾아가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지원절차를 알려준다. 이상욱 회장은 "피해자들은 종종 충격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범죄 피해자들을 위로하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일어나는 강력범죄는 5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한 2백만명에 이르겠지요. 그런데 범죄 피해는 단지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그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고 있는 수준이지요. 설립 한 지 1년 조금 넘는 동안 지원해 온 피해자가 5백명인데, 턱없이 부족해요.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피해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협회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상담받게 되죠. 심리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하고, 사회적응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때 특별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얼마 전 의정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길, 사건 후에 어디를 가나 뛰어다니는 사람만 보면 가슴이 철렁한답니다. 묻지마 범죄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큽니다. 심리적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재를 1백퍼센트 예방할 수는 없지만 화재보험에 들어놓으면 최악의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지요. 범죄를 1백퍼센트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지원이 꾸준하고 근본적으로 이뤄진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절망이나 상실감 등을 치유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도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아직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재원이 부족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할 만한 도움을 못 주는 것이 아쉽습니다.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 중 한 분은 사건 발생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이렇게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꾸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제주 일원에서는 9월 6일부터 15일까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막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지구의 환경 비전'을 청정 제주서 밝힌다

9월 6~15일… 청중과 함께하는 세계리더스대화도 처음 열려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의 민·관 환경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동북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는 역대 최다 발의안 제출을 기록했으며, 총회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세계리더스대화'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9월 6일 오후 4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마라톤 일정을 시작한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자연보전 분야 최대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환경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1백80개국의 1천1백여 개 단체, 1만여 명이 참가해 전 지구 차원의 환경정책을 논의하고 환경 비전을 모색한다.

IUCN은 1948년에 창설된 국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NGO)의 연합체 형태로 발전한 환경단체로 현재 국가회원(91개), 정부기관(1백23개), 비정부기구(9백67개) 및 협력기관(43개) 등 총 1천2백24개 회원이 가입해 있다.

기후변화 등 5개 주제로 4백50여 이벤트

이번 총회는 '자연의 회복력(Resilient Nature)'이라는 주제와 'Nature+(자연 및 이와 관련 다양한 이슈로의 확장)'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며, 동북아에서는 우리나라(제주도)가 최초의 개최국이 되어 열리는 총회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에는 역대 총회 사상 가장 많은 1백76개의 발의안이 제출됐다. 이들 발의안은 IUCN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안건 채택이 결정되며, 향후 국제환경 정책과 논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황사피해 저감', '공유재산 보전' 등 20여 건의 발의안을 제출해 놓았다.

총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세계자연보전포럼은 ▲기후변화 ▲식량안보 ▲발전 ▲사람 ▲생물다양성 등 총 5개 대주제로 진행되며, 환경 관련 워크숍, 지식카페, 전시 등 4백50여 건의 다양한 포럼 이벤트가 열린다.

인터넷 생중계·일반인도 참가신청 가능

이번 총회에서는 역대 총회 사상 처음으로 '세계리더스대화(World Leaders Dialogues)'가 개최된다. 세계리더스대화는 국제사회에서 환경 논의를 주도하는 세계 유명지도자와 전문가 30여 명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5가지의 핵심적인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해 청중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총회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계리더스대화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5가지 핵심 주제는 ▲기후(Nature+ Climate, 9월 6일) ▲식량(Nature+ Food Security, 9월 7일) ▲경제(Nature+ Development, 9월 9일) ▲인간(Nature+ People and Governance, 9월 10일) ▲생명(Nature+ Life, 9월 11일) 등이다.

이번 대화에는 국제사회에서 환경 분야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환경기구 대표들로 아킴 슈타이너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럭 낙가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 브라리오 페레아 드 수자 디아스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등 '세계 3대 환경협약'의 사무총장들이 참석한다.

세계리더스대화 참석 패널들. 럭 낙가자 UNCCD 사무총장,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이석채 KT회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왼쪽부터).

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로는 바라트 자그데오 가이아나 전 대통령, 리온포 킨장 도르지 부탄 전 총리 등이 패널로 참석하며, 세계적인 정유회사 쉘(Shell)의 마빈 오둠 북남미 총괄회장, 글로벌 농업 및 유전자 기업인 신젠타의 마이클 맥 CEO 등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만의 로하스코리아포럼 이사장, 이석채 KT회장 등이 참석한다.

세계리더스대화는 IUCN의 총회 홈페이지(www.iucn.org/congress)와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wcc2012.or.kr)를 통해 실시간 인터넷 웹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된다.

또 총회 홈페이지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하면 일반인들도 세계리더스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총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World Conservation Congress)

- 기간 : 2012년 9월 6~15일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Jeju)
- 세계보전포럼 : 9월 7~11일
- 회원총회 : 9월 8~15일
- 현장답사 : 9월 13일
- 주제 : 자연의 회복력(Resilient Nature)
- 슬로건 : Nature+
- 주최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주관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 홈페이지 www.iucn.org/congress,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www.wcc2012.or.kr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기념해 열리는 환경대축제를 지원하는 에코서포터즈가 8월 25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있다.

'환경 보물섬' 제주로 혼저 옵서예

총회장·숙소·교통 등 친환경 운영… 직·간접 경제효과 3천억원 예상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의 환경 보물섬'으로 불리는 제주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면모를 지구촌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에 따라 세계자연보전총회에는 제주도의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으며, 행사장 안팎은 우리의 녹색기술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으로 준비되고 있다.

땅 위에는 3백68개의 오름, 땅 아래로는 1백60여개의 용암동굴이 섬 전역에 분포해 있는 제주도. '화산 박물관'이라 부를 만큼 독특하고 다양한 화산 지형을 자랑하는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람사르 습지,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 환경 그랜드 슬램' 4개 타이틀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유일의 섬이기도 하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는 제주를 찾은 세계인들에게 제주의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총회 기간 중 공식투어, 특별투어 등 생태투어가 진행된다.

공식투어는 9월 13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총회 참가등록자 중 선착순 신청자 5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제주도내 1백49개 생태·문화·역사 등 3가지 주제의 관광지 51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제주도민 생태해설사' 4백명이 배치되어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투어는 제주도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1박2일 전국투어 프로그램이다. 낙동강 하구, 창녕 우포늪, 북한산 둘레길, 파주 비무장지대(DMZ) 등이 포함된 8개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9월 12~13일 ▲2차는 9월 16~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총회 참가등록자 중 선착순 5백명을 선발해 경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는 총회장 조성부터 숙박, 운송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 운영 방식이 도입된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위원회는 친환경 총회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총회 방문객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숙소와 회의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했다.

스마트 기기 이용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장'

세계자연보전총회 공동주관자인 제주도는 총회를 위해 새로운 행사장을 조성하는 대신 기존 건물인 제주 국제컨벤션센터를 주행사장으로 활용하면서 이곳을 친환경 건물로 탈바꿈시켰다.

먼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건물에서 에너지 낭비가 큰 유리벽면(1만7백41제곱미터)에 단열필름을 설치, 유해 자외선과 실내 열손실을 차단했다. 냉난방 기기를 비롯, 승강 설비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했다. 7백28제곱미터 면적의 6층 건물 옥상은 자연 친화적인 회의 공간으로 꾸몄다. 에너지 사용을 통합 관리하는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4~5퍼센트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간 71만7천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해 시험가동 중이다.

회의장 안에도 세계 최고의 최첨단 정보기술(IT)의 지원으로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장'이 될 전망이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총회 참가자들이 종이책 없이 스마트 기기로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갤럭시 노트 10.1' 1천5백대와 'LED Smart TV' 60여대를 지원했다.

현대·기아자동차도 탄소 저감을 위해 K5와 쏘나타 하이브리드카 등 의전용 차량 40여대와 총회장 인근을 운행할 전기버스 2대를 지원했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행사용으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버스 2대를 지원, 셔틀버스로 운행된다.

총회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만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만큼 제주지역 주요 호텔을 중심으로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친환경 실천 가이드북을 제작해 숙박,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 친환경 실천 가이드북은 시설별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실내온도 설정 등에 대한 에너지 관리 표준, 절약 방법, 1회용 욕실용품, 컵 등의 사용 자제 및 쓰레기 배출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실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총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글로벌 리더십이 제고될 뿐 아니라 제주 지역 경제 및 국내 관광산업, 환경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경제가치가 3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제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알리고 제주의 생태관광 기반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지난 8월 26일 열린 제2회 천지연유등문화축제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기원과 소원을 담아 띄운 유등.

2AM·보아 등 아이돌 스타들 축하 공연

9월 8일 밤 제주서 콘서트 'K팝 Nature+'

동북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축하하고, 우리나라와 제주도를 알리는 문화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다.

먼저 9월 8일 오후 7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야외 특설무대에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기념 콘서트 K팝 Nature+'가 열린다.

총회 홍보대사인 2AM과 보아, 샤이니, 우영(2PM), 티아라, 제국의 아이들, EXO-K, 나인뮤지스, 에이핑크 등 인기 한류가수들이 참여해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노래로 알릴 예정이다. 또 디자이너 이상봉의 환경패션쇼, 이은결의 환경마술 공연도 볼 수 있다.

총회 참가자 2천명, 제주도민 5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KBS 제주방송총국에서 무료로 배부 중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8월 16일부터 한 달간 총회 개최를 기념하는 '환경대축제'를 진행 중이다.

이 축제는 '세계와 통하는 31일간의 제주 여행'이란 슬로건 아래 제주도 전역 11개 장소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 축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총 5백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제품 만들기 체험, 영화, 음악, 요리, 여행, 전시, 벼룩시장, 각종 환경 관련 콘테스트 등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위원회 ☎02-768-8627
제주도 콜센터 ☎064-120

이홍구 조직위원장

“사상 첫 녹색성장 제주선언 채택할 것”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고,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올랐다. 이곳 제주에서 ‘지구촌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린다. 동북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이홍구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장에게 들었다.

조선DB

이홍구 조직위원장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주도국으로서 국제 환경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전 세계 환경전문가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회의다. 이 회의는 1948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유엔의 비정부기구(NGO) 1호로 등록되면서 시작됐다.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IUCN 총회가 명칭을 WCC로 바꾸고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캐나다 몬트리올 총회 때부터다. 이후 2000년 요르단 암만, 2004년 태국 방콕, 2008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됐다.

이홍구 조직위원장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될 제주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면서 “런던올림픽때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며 응원을 보내 준 것처럼 이번 국제회의에도 열정과 관심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WCC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WCC는 환경과 관련해 가장 오랜 역사와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IUCN이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자연보전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정부기관, NGO, 학계, 기업은 물론 언론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요. 정부와 NGO가 함께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하는 유일한 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총회의 개최지로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 등 국제회의 개최가 가능한 수준 높은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요.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2006년 IUCN 사무국을 방문해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도 유치를 건의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먼저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자연유산, 국제회의장 규모, 국제대회 유치경험 등 개최 여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자 면제국이 1백80개국에 달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하기 편하다는 점도 유치결정에 큰 역할을 했지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이홍구 조직위원장이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홍보대사인 인기 그룹 2AM과 함께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삼각동 한빛미디어파크에서 열린 D-300 기념식에서다.

총회 역사상 최초로 한국 특성이 반영된 의제가 설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한국 IUCN 회원들은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총회를 한국적 의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적 관심과 협력을 확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총회 역사상 최초로 IUCN에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총 20여 건의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발의안은 이번 총회에서 전체 투표로 채택되는데, 사안에 따라 결의문 또는 권고문으로 결정되지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의안으로는 ‘자연보전과 경제개발의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 ‘황해의 지속 가능성과 보전’, ‘황사 피해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이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동북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됩니다. 중국과 일본, 대한민국 모두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경제대국들로, WCC는 이러한 지역에서 자연보전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즉 ‘동북아의 시각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세계적으로 선보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주 선언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IUCN 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총회 역사상 최초의 선언문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제주선언문은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종합하는 요약문으로 녹색성장을 글로벌 자연보전과 환경문제의 해결전략으로 제시하고, 세계리더스보전포럼(가칭) 설립 제안을 통해 환경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총회로 치러진다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요.

“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넘어 행사장 조성과 운영방식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총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회장을 친환경적 시설로 개량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주 행사장인 제주컨벤션센터는 건물 전체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승강설비 등은 절전형으로 교체했고요. 총회 기간 중 참가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버스와 전기승용차를 운영하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IT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첨단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하여 총회관련 정보는 디지털화하고, 주요 회의장에 태블릿 PC와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종이사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회 기간 중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기부를 통한 탄소상쇄기금을 조성해 총회 기간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계획입니다.”

총회 개최로 얻게 될 기대효과는 어떤게 있습니까.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주도국으로 국제 환경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WCC는 국제 환경회의 중 정부와 NGO가 함께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유일한 회의이고, 총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국제 환경협약과 규정, 법률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외교적 기대효과 이외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적 기대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회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생태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예상돼 제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해외에 홍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 매체들을 통해 한국의 선진 환경정책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순천만 등과 같은 우수한 생태자원 등이 소개된다면 그로 인한 국가브랜드 홍보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회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이번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처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의는 드물었던 것으로 압니다. 자연보전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천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G

글 · 서철인 기자

첫날부터 金 총성 런던 감동 어게인

'하나 된 우리(Live as one)'를 주제로 하는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이 한국 시각 기준 지난 8월 30일 개막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은 다른 장애인올림픽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 런던이 장애인올림픽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개막식에 우리 선수단은 164개 참가국 중 121번째로 입장하며 선전을 다짐했다. '역동하는 혼(Spirit in Motion)'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개막식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오프닝에 깜짝 등장해 8만 관객과 세계인에게 감동을 안겼다.

지난 8월 29일 열린 런던장애인올림픽 성화봉송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한용외 부회장과 휠체어 육상의 홍석만이 참여했다.

지난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 13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도 그와 비슷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회 첫날부터 우리 선수단은 승전보를 전해왔다. 첫 금메달의 영광은 사격의 박세균에게 돌아갔다. 영국 런던 왕립포병대에서 30일에 열린 10미터 공기권총에서 박세균 선수는 터키의 야마크 선수에게 동점을 허용해 슛오프까지 가는 피말리는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세균은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2010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 대회 3관왕에 오른 사격 강자다. 같은 종목에서 이주희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은 9월 9일에 폐막한다. G

글 · 하주희 기자

1 런던장애인올림픽 대회 첫날인 8월 30일(현지시각) 남자 사격 10미터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세균(왼쪽에서 세번째)과 동메달을 딴 이주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시상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 29일 런던장애인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1백64개 참가국 중 1백21번째로 입장하고 있다. 기수는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휠체어 육상의 김규대가 맡았다.

3 28일 런던 워털루역 인근 한인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 선수단에 한식을 제공하는 'K-BAP 프로젝트' 개소식이 열렸다.

4 30일 유도 60킬로그램 이하급의 이민재 선수가 프랑스의 케빈 빌레몽 선수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

5 2004 아테네장애인올림픽,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딴 장애인 탁구 세계 최강자 나탈리아 파르티카(폴란드)가 서브를 하고 있다.

“삶이 힘들어도 특별한 성취 이룰 힘 있다”

스티븐 호킹 박사 깜짝 연설… “가장 멋있는 개막식”

런던장애인올림픽 개막식은 많은 화제를 낳았다.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의 발전사에 녹여내 장애인올림픽 사상 가장 멋있는 개막식 중 하나로 평가됐다.

개막식의 주제는 ‘역동하는 혼(Spirit in Motion)’이었다. 개막식 연출은 연극 예술감독 출신인 브래들리 헤밍스와 제니 실리가 공동으로 맡았다.

개막식의 전체 뼈대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를 기초로 했다. 영국 영화배우 이언 매켈런이 〈템페스트〉의 남자 주인공 프로스페로를 맡았다. 여자 주인공 미란다가 책, 뉴턴의 사과, 태양열 등 인류의 발전을 앞당긴 상징물을 만난다는 설정은 과학과 문화의 세계를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깜짝 스타는 뭐니뭐니해도 개막식의 문을 연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였다. 호킹 박사가 오프닝 무대에 등장하자 관중은 엄청난 환호를 보냈다. 스물한 살에 루게릭병(근육이 위축되는 질환) 진단을 받은 뒤 몸 전체에 마비가 진행돼 몸의 거의 모든 부분을 움직일 수 없게 된 호킹 박사가 대중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다. 지난 1월 8일 그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강연이 열렸을 때도 건강이 악화된 그는 강연을 들으러 온 청중에게 음성을 녹음해 보냈었다.

8월 29일(현지시각) 열린 런던장애인올림픽 개막식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깜짝 등장했다.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에 걸려 전신마비와 싸우면서도 우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장애인들의 ‘희망’ 같은 존재다.

호킹 박사의 빅뱅 이론 표현한 퍼포먼스도

그런 그가 개막식에 등장해 청중과 세계인들에게 짤막한 강연을 선사했다. 호킹 박사는 1985년 폐렴을 앓아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그 후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음성 합성장치를 사용해 왔다. 그의 강연은 인간의 호기심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 인간은 우주의 근본 질서를 이해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왜 그것은 그런 상태에 있으며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표준적인 인간’이나 ‘평범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창의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모든 사람에겐 특별한 성취를 이뤄낼 힘이 있습니다.”

호킹 박사의 강연이 끝나고 공중에 떠 있던 천체 구조물이 경기장 한가운데 설치된 거대한 우산 구조물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빅뱅’을 표현하는 퍼포먼스였다. 빅뱅 이론은 우주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호킹 박사가 뼈대를 만든 이론이다.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향연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축제에는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장면들이 순간순간 등장했다. 호킹 박사 자체가 전신 마비를 이겨낸 장애인들의 희망이다. 〈템페스트〉의 여주인공 미란다 역을 맡은 행위예술가 니콜라 월딘도 장애인의 한계를 상징하는 ‘유리 천장’을 목발로 깨뜨리며 한계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개막식의 마지막에는 ‘나는 나 자신이다(I am what I am)’라는 노래가 흘렀다. G

글·하주희 기자

“런던으로 떠난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들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대표단 1백48명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감동과 희망의 역사를 지켜봐 주십시오. 심재용 선수(사격)의 아내, 정호원 선수(보치아)의 어머니가 응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대표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도전을 향한 당신에게”

사격 **심재용** 선수 아내 **이옥자**

1986년 교통사고 후 좌절을 딛고 사격을 시작한 후 장애인올림픽이란 커다란 축제에 참여한 것도 이번 올림픽이 네 번째 도전이네요.
멋진 내 남편 파이팅!
게임을 치를 때마다 통증과 싸우며 한 발 한 발 방아쇠를 당길 때 숨죽이는 긴장감과 꽉 다문 입술, 당신 등줄기에서 흐르는 식은땀을 보면서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뿐이었어요.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당신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라는 것처럼 런던장애인올림픽도 행복하게 즐기면 당신이 흘린 땀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요.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당신의 아름다운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땀과 열정에 도전하는 장애인 선수 여러분, 그대들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챔피언입니다.
파이팅! 사랑해요.

–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내가

사랑하는 장한 우리 아들

보치아 **정호원** 선수 어머니 **홍현주**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도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어 너의 꿈을 펼쳐 나가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세상을 보는 마음 또한 긍정적이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위의 모든 사람의 보살핌에 감사할 줄 아는 너를 보면서 엄마는 마음이 놓인단다.
장한 아들아!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내일의 꿈도, 희망도 있단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느 곳에 있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잘 알지?
이번 런던장애인올림픽에 가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 엄마도 너무나 잘 알아. 너의 노력과 땀방울을 엄마는 믿고 있다.
호원아.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선생님의 공인 줄 알고 교만, 자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절대 잊으면 안 돼. 특히 권철현 선생님의 보살핌과 수고에 대해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 아들이 잘하는 줄 알지만 엄마가 괜한 걱정을 한다.
아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아자아자 파이팅!

– 너의 엄마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 수는 점차 증가해 현재 6백80개에 달한다. 지난 7월 1~2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열렸다.

상생·공생발전의 대안 '사회적기업'

소통 활성화 워크숍 가져… 12월 사회적협동조합 출범으로 새 전기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상생과 공생발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운영에 관심을 쏟고 있다. 8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사회적기업 소통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옷이나 폐품을 손질해 되파는 영국 기업 굿윌,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는 그라민 은행이 설립한 그라민-다농 컴퍼니, 알코올 중독자와 전과자를 고용하는 파이어니어 휴먼서비시즈 등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이익을 얻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수익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는데, 2011년부터는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양극화 해소 방법 중 사회적기업 '원 오브 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와 높아진 실업률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지고,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적기업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당연시되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대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났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6백80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된 데다가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8천명을 넘어섰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화성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사회적기업 소통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성공한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소통을 통해 동반 발전을 이뤄내자는 취지에서다.

사회적기업 노리단은 문화공연을 통한 상생 발전을 꿈꾼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노리단원들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기반조성본부장은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은 오랫동안 자생적 노력으로 커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민사회의 인식, 문화, 시장 환경도 같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종종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다. 협동조합은 투자자가 소유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조합원들은 투자 규모와 상관 없이 1인 1표를 배당받게 된다.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공생발전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대기업과 협력해 성장동력 강화도 필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자격을 검토해 인증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조합을 결성하기만 하면 법인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설립하기가 훨씬 쉽다. 게다가 사회적기업 유형은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설립될 수 있다. 최혁진 본부장은 "사회적기업이 가장 발달했다는 이탈리아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실천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금이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인재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좀 더 안정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려면 이해당사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인재육성과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펼치는 것은 물론, 정부는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사회적기업이 들어서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의 직·간접적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기업이 놓치기 쉬운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전달 분야를 사회적기업이 보완하고, 대기업은 이를 지원하면서 양쪽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은 상생과 공생발전의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로 대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이 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그쳤다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노인 및 장애인 돌봄분야 1호 사회적기업인 '안심생활'을 2006년에, 국내 첫 장애인용 보조기구 생산 사회적기업인 '이지무브'를 2010년에 설립해 사회적기업을 통한 상생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지무브의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품질인증 GMP를 받아, 사회적기업의 제품 품질은 뒤떨어진다는 일부 오해를 없앴다.

워크숍에는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20개 사회적기업 대표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노리단, 자바르떼, 도서출판점자, 에이컴퍼니 등 4개 기업은 운영사례를 발표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털어놓으며 친목을 다졌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노리단 유효봉 대표는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글·김효정 기자

“젊은 미술작가들의 꿈을 후원합니다”

정지연 대표, 미술품 거래 틈새시장 개척… “대중과의 거리도 좁혀야죠”

해마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미술대학 졸업생 수는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작가의 길을 걷는 대신 취업을 선택한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가 작품활동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에이컴퍼니’는 국내 젊은 작가들이 처한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정은주 기자

에이컴퍼니는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나의 첫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작품전시 기회를 주는가 하면, 일상에서 편안하게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몇몇 카페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카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에이컴퍼니(artisfanclub.com)’는 2008년 정지연 대표가 온라인에 개설한 카페 ‘아티스트 팬클럽’에서 출발했다. 미술 애호가였던 정 대표가 ‘영화를 보고 서점에 가듯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미술을 즐길 수는 없을까?’,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미술작가를 응원하는 팬클럽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을 안고 시작한 일이었다.

이후 매월 한 번씩 직접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해 쓰는 탐방기사, ‘작가와의 인터뷰’는 회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여간해서는 대중과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젊은 작가들에게도 “힘내라”는 팬들의 ‘댓글’은 더없이 큰 응원이었다.

회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당시 직장인이던 정지연 대표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아티스트 팬클럽’에 매달렸다. 우선 2010년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한 이후 첫 작품으로 ‘반짝쇼’를 기획했다.

미술과 대중 간의 거리 좁히기를 고민하던 정 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그림을 보러 갤러리에 가고 싶지만 퇴근 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 관람이 어렵다”, “막상 들어가도 근엄한 분위기에 위축될 때가 많다”, “작품이 너무 비싸다”는 직장인들의 불만을 알게 되었다. 젊은 작가들은 작가들대로 “어렵게 전시회를 열어도 지인들을 빼면 일반 관람객은 50명도 채 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 전시회 첫 기획

양쪽의 의견을 조합해 평일 저녁 7시30분, 전시회를 열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던 터라 운영진은 재능기부 형태로 모았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인디밴드의 공연도 곁들였고, 간단한 다과도 준비했다.

그림이 전시된 10명의 작가가 직접 현장에 나와 관람객들과 만나 그림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입장료로 1만원을 받았지만, 티켓은 일찌감치 동이 났다. 당초 50명으로 예상한 관람객이 1백명에 가까울 정도로 색다른 이 전시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반짝쇼’는 이제 에이컴퍼니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에이컴퍼니

에이컴퍼니는 수업료가 비싸 미술학원에 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짝쇼’의 성공 이후 가능성을 확신한 정 대표는 2011년 에이컴퍼니를 설립, 그해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 에이컴퍼니는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나의 첫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작품전시 기회를 주는가 하면, 일상에서 편안하게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몇몇 카페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카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선별된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브리즈 아트페어’나 미술작품 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오운 아트(own art) 캠페인’도 에이컴퍼니의 야심작이다.

이 중 ‘오운 아트(own art) 캠페인’은 미술작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 한해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영국의 ‘오운 아트 론(own art loan)’을 벤치마킹한 것. 에이컴퍼니는 ‘브리즈 아트페어’에 전시된 작품의 경우 10개월 할부를 권장하고 할부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의미로 작품가격의 10%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이 비용은 에이컴퍼니와 작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에이컴퍼니가 1년에 두 번 여는 ‘브리즈 아트 페어’는 신진 작가와 신진 컬렉터를 발굴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미술축제. 작가 공모를 통해 중저가의 선별된 작품만을 소개해 인기가 높다. 정 대표는 “몇 십만원 대의 그림도 많아 한 달에 몇 만원으로 멋진 작품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며, “일반인들의 미술품 구입을 늘리기 위해 우리도 ‘오운 아트 론(own art loan)’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미술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버스미술관도 기획 중이다. 미술관이 없어 그림 전시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갤러리’를 계획한 것. 이를 위해 1인당 만원의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수업료가 비싸 미술학원 한 번 가 보지 못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미술작품 거래에 10개월 할부제 도입

에이컴퍼니의 수익모델은 작품판매,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디자인 소품제작 등 세 가지. 아직 큰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직원들은 희망을 갖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 직장 다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다”는 정 대표는 “혼자, 집에서 취미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번듯한 사무실에서 6명의 직원이 일하는 회사가 된 것이 꿈만 같다”며 웃었다.

관심은 있었지만 미술작품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에이컴퍼니는 작품을 소유하는 기쁨을 안겨 준다. 작가와 직접 만나는 잊지 못할 경험도 선물한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작가들과 미술작품과의 새로운 사랑에 빠진 관람객들이 보내 오는 감사 이메일에서 정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은 보람과 힘을 얻는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언젠가는 글로벌한 회사로 키워 우리 작가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싶다는 에이컴퍼니. 미술시장이 활성화돼 많은 작가가 걱정 없이 작품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미술과 가까워져 우리의 문화예술 토양이 비옥해지는 그날까지 에이컴퍼니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 G

글 · 최선희 객원기자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은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를 꿈꾸는 공정여행사다. 국내 여행부터 해외 여행, 여행 대안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여행자의 20퍼센트가 공정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두 즐거운 공정여행이 세상을 바꿔요"

여행문화 혁신… 일회용품 안 쓰고 대중교통과 현지인 운영 숙소 이용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자들"을 기치로 내건 공정여행사 '트래블러스맵'은 작년 한 해 4천명의 고객을 유치해 13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사회적기업이다. 문화와 자연, 사람을 생각하는 여행을 하고 싶다며 여행사를 차린 지 3년 만의 일이다. 트래블러스맵 가족들은 다 함께 사는 세상, 소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공정여행이라는 점이라며 "공정여행 문화가 더 확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사 트래블러스맵을 세운 직원 대부분은 여행사 업무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변형석 대표는 대안학교 교사로 6년 넘게 일했다. 하자작업장학교의 수업 중에는 여행 수업이 있었는데 천방지축 같던 학생들이 여행을 다녀오고 부쩍 성장하는 것을 보고 여행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해외여행 인구가 연간 1천2백만명이 넘는 요즘, 여행사는 50만원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걸로 비행기값이나 하겠어요? 여행사는 수익을 얻으려 여행자들을 정해진 숙소와 식당에 데리고 가고 옵션 상품을 구매하게 하죠. 그건 여행사와 숙박업계의 배만 불리는 일이에요. 유명한 관광지 주민이 왜 가난에서 못 벗어날까요? 여행만을 위한 관광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여행이 필요해요."

공정여행이란 여행자의 책임과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여행 방식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공정여행자는 여행을 '어떻게' 다녀올지 고민한다. 트래블러스맵 조주양 기획팀장은 공정여행을 "깨알 같은 여행"이라고 표현했다. 예를 들면 공정여행자들은 탄소 발생을 줄이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인과 직접 소통하는 일은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일이다.

관광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행

사회적기업으로서 트래블러스맵은 여행상품을 개발해 공정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여행상품을 팔아 수익을 내기보다 여행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익의 1퍼센트를 탄소상쇄기금에 기부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여행에서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캄보디아 여행이다. 5박7일 일정 중 하루는 현지인의 집에서 머무는 '홈스테이'를 한다. 아침 식사 후 시장을 둘러보며 자전거 트레킹을 하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다.

가까운 곳에서 공정여행을 실천할 수도 있다. 지리산 둘레길, 경남 통영 등 관광지부터 유네스코 등록 산림자원 보호지역인 곰배령으로 떠나는 상품도 있다. 서울 종로거리를 1박2일 동안 탐방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패스트푸드 대신 동네 식당을 찾는다.

그러나 아직 트래블러스맵을 찾는 고객은 평소에 공정여행에 관심이 있던 사람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더 다양한 공정여행자를 모집하기 위해 최근에는 허니문 상품도 개발했다.

조주양 팀장은 "요즘 신혼부부는 의미 있는 여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바디안섬은 필리핀 세부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섬인데 대규모 리조트 대신 전통 건축 방식을 본떠 만든 리조트가 있어요. 유기농 농장이 있고, 부부의 이름을 새긴 나무를 심을 수 있어 '가치 있는 여행'을 바라는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좋아요."

청소년 위한 체험 수학여행 개발

트래블러스맵이 주목하는 여행자층은 청소년이다. 조주양 팀장은 트레킹하고 자연생태 우수마을에서 숙박하는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떠나는 수학여행' 상품을 설명하며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릴 적 배운 여행 문화가 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행 대안학교도 만들었다. '지구별 여행자'라는 이름의 대안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트래블러스맵은 지금처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변형석 대표는 "서비스업은 처음인 사람들끼리 목표 의식 하나만 갖고 모였다"며 회상했다. "처음에는 어설펐어요. 그런데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게 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즐거운 여행을 만들자는 직원들의 의지 덕분이죠."

물론 대형 여행사가 아니라서 갖는 한계도 있다. 수익이 남으면 다시 공정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데 쓰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다른 방식의 여행을 가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도, 공정여행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조주양 팀장은 간혹 '가격이 비싸다'고 물어오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손님이 익숙한 '싼 가격'은 사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공정여행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나 여행자를 위해 차려진 식당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조금 더 들어요."

트래블러스맵은 설립 3년 만에 한 해 4천명의 고객이 찾는 여행사로 성장했다. 현지인과 소통하는 여행 방식이 고객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행인구가 늘어났지만 여행문화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트래블러스맵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다. "공정여행은 '다함께 사는 세상', '소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변형석 대표는 강조했다.

처음 트래블러스맵이 네팔 여행 상품을 내놓았을 때 찾은 고객은 9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점차 고객이 늘어 지난해에는 4천명이 트래블러스맵을 통해 공정여행을 다녀왔다.

변형석 대표는 "공정여행은 사회적 변화의 일부분"이라며 "여행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트래블러스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만을 위한 여행 문화가 자연과 문화, 사람을 존중하는 여행 문화로 바뀔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자연과 문화, 사람을 존중하는 여행 문화로

변화할 미래에 맞춰 다양한 공정여행 방식을 개발 중이다. 곧 20대가 쉽게 공정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싼 가격의 여러 관광지 상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나라 체류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여행 상품도 고민하고 있다.

조주양 팀장은 "우리 말을 알고 우리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이 안내하는 여행"이라고 설명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립을 도울 뿐 아니라 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겁니다."

트래블러스맵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 여행자의 20퍼센트가 공정여행을 다녀오는 여행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조주양 팀장은 "모두가 공정여행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공정여행이 익숙해질 때 여행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거라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G 글·김효정 기자

박경아 기자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태국 정부가 대규모 홍수방지산업시찰단을 파견한 가운데 8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은 태국 시찰단원들이 홍수통제상황실 모니터에 나타난 각종 데이터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태국 공무원 2천명 방한… 물관리도 한류

두 달에 걸쳐 홍수방지산업시찰단 파견… 한강홍수통제소 등 방문

지난해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피해를 입은 태국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두 달동안 우리나라에 중앙부처 공무원과 도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홍수방지산업시찰단을 파견했다. 물관련 기술을 배우고자 2천명 수준의 외국공무원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류관광, 의료관광에 이어 바야흐로 물관리 한류, 기술관광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어 제14호 태풍 덴빈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난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강홍수통제소 3층 홍수통제상황실.

홍수통제소 직원들이 덴빈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의 태국 방문객들이 경탄하는 표정으로 전체 벽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실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이곳 모니터 화면에는 각종 기상과 하천 관련 데이터, 각 댐과 교량에 설치된 실시간 폐쇄회로(CC)TV 화면 등 각종 물관리 관련 정보들이 통합되어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이날 방문객들은 수라차이 라타나썸퐁 태국 지구정보·우주기술개발국(GISTDA) 부원장을 비롯한 GISTDA 고위급 직원, 태국왕립관개청(RID) 직원 등 40여명이었다. GISTDA는 태국의 위성영상정보 및 우주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위성을 통해 태국 전역의 홍수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들은 태국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홍수방지산업시찰단의 일원으로, 태국 정부는 지난 7월, 8월 두 달간 매주 한 차례씩 총 9차례에 걸쳐 회당 1백50~2백명씩 모두 약 2천명의 홍수방지산업시찰단을 파견했다. 이들에 이어 태국의 지방공무원 1백여명이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이날 하루만도 1백50명가량의 사찰단이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했다.

"어떻게 이곳에서 다른 기관들의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가?" "댐에서 방류를 할 때 이곳과 협의를 하는가? 서로 다른 기관인데 그게 가능한가?" "주민들에게도 홍수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빠르면서도 불안하지 않게 제공하는가?"

댐방류·홍수정보 제공방법 등에 큰 관심

이번 마지막 시찰단에는 특히 기상이나 수리 관련 고위급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 질문하는 내용도 실제 물관리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매우 구체적이었다.

이들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담당한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의 김휘린 연구사는 질문에 대해 일일이 대답했다.

"우리나라의 발달된 정보기술(IT)을 통해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기상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10분에 한 번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댐 방류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승인절차에 따라야 하며, 홍수통제소와 같은 관할기구의 지휘 아래 여러 기관 담당자들이 정보를 취합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방류하게 됩니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 언론, 전광판,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로까지 제공됩니다."

김휘린 연구사는 "그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한국에서는 왜 강변 가까이에 사람이 살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태국에서는 강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홍수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수티락 라니완(54·여)GISTDA 부국장은 "IT를 활용한 한국의 물관리에 감명받았다"며 "한국의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하고 묻기도 했다.

GISTDA와 협력업무를 하다 이번 시찰단에 참가한 폰팃 종크로(48·여) 까셋사르트대학 지리학과장은 "빈국이었던 한국이 태국을 추월한 경제성장을 하고, 지금과 같은 첨단 물관리 기술을 갖게 된 것이 정말 놀랍다"면서 "그동안 한국과 어떻게 접촉하고 정보를 얻을지 몰라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 방한이 좋은 기회가 됐다"

한강홍수통제소

태국 홍수방지산업시찰단원들이 한강홍수통제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발전의 배경에는 개인보다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다"면서 "그러한 태도를 태국인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감이 한 나라의 물관리 수준을 높이는 기틀이 된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인원의 경비를 부담하며 홍수방지산업시찰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이유는 태국이 고질적인 홍수피해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 국토의 70퍼센트 이상이 침수되어 4백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18조원의 경제손실을 입은 바 있다.

"빈국이던 한국의 첨단 물관리 기술 놀랍다"

이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3월 방한했던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당시 이곳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우리나라 통합 물관리 기술과 홍수예보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아 태국에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도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홍수방지산업시찰단을 보내게 된 것이다.

태국 홍수방지산업시찰단은 그동안 3박4일간 우리나라를 찾아 첫날은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하고, 둘째 날은 강천보 현장 및 한강문화관을 견학해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직접 경험했다. 나머지 일정에는 남이섬, 서울시내 관광 등으로 한국을 접했다.

마지막 시찰단 가운데 가장 고위직인 수라차이 부원장은 "태국은 지난해 50년 만의 대홍수로 인해 2백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의 앞선 물관리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상호교류를 통해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경험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대한민국 서울역 재창조'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서울역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한 해 3천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찾는 서울의 관문으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국군수송지원반(TMO)이 공항라운지 같은 여행장병라운지로 탈바꿈했다.(위 사진)
전통공예품 매장 하이핸드코리아에는 외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아래 사진)

여기가 공항? 서울역이 달라졌어요

깔끔한 장병라운지·면세점 같은 매장… 서울의 진정한 관문으로

한 해 3천만명이 찾는 곳,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 서울역이 변하고 있다.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전통 공예품을 파는 매장이 생겨 외국인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국군 장병이 쉴 수 있는 '여행장병라운지'나 환승도우미 서비스는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기차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 편리하고 더 한국적으로 새롭게 꾸며질 서울역을 찾아가봤다.

"몇 년 전 큰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돌아가는 날, 역 한복판에 서서 아들 뒷모습 지켜보다가 눈물 흘린 적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랑 이런 곳에 앉아 있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빳빳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커피를 한 잔 따라 마시는 막내아들을 지켜보던 김화숙(59)씨가 서울역 '여행장병라운지'에 앉아 아들과 환담을 나눴다.

밝은 색상의 의자와 탁자, 빽빽이 꽂혀 있는 책과 푸짐히 차려진 과자가 언뜻 국제공항 라운지 분위기를 주지만, 알고 보면 국군 장병들의 휴식 장소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장병과 가족들의 쉼터로 만들어진 여행장병라운지는 얼마 전 '대한민국 서울역 재창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기존 국군수송지원반(TMO)을 새단장한 곳이다. 열차표 예약과 발권 등 단순 수송 업무만 제공하던 안내소에서 벗어나 여러 편의시설을 갖춘 국군 장병 전용 쉼터로 변모했다.

외국인들도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한 해 서울역을 찾는 사람은 3천3백60만명에 이른다. KTX와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외국인의 서울역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도시 서울의 대표 관문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맞게 재창조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 5월 서울역 2층 맞이방에 전국신상품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예품매장 '하이핸드코리아', 여행장병라운지 등을 만들었다. 역 공간을 새로 꾸미는 것뿐 아니라 환승도우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역 재창조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서울과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 외국인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드는 동시에 내부시설과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서 이용객이 편리한 서울역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통 공예품을 파는 하이핸드코리아는 한국적 문양을 새긴 젓가락부터 장인의 손길이 닿은 나전칠기와 한산모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 출국 비행기를 타기 전 기념품을 고르는 외국인의 발길이 잦다.

이곳에서 한산모시 컵받침을 구경하던 일본인 다니구치 유카리(31) 씨는 "친구들에게 한국 전통 물건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막상 파는 곳이 적어 사지 못했었다"며 "다양한 제품이 있어 뭘 살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여행을 온 미야즈카 에미(33) 씨는 "한국에 다섯번째 오는데 올 때마다 변화하는 것이 보여 늘 새롭다"며 "서울역도 점점 편리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환승도우미 서비스는 이용객들이 서울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다. 노인이나 여성 등 교통 약자들이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짐 옮기는 것을 돕고, 주변 지역을 안내하며 철도 이용에 궁금한 점을 곧바로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역 곳곳에 배치됐다.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를 타러 서울역에 도착한 승객 한상만(67)씨는 "관절염을 앓고 있어 매번 짐을 들고 역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도우미들이 도와주니 한결 편하다"며 달라진 서비스에 만족해했다.

코레일이 주도…"기차문화 발전에 도움"

2004년 KTX 개통에 맞춰 새로운 역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서울역의 원래 콘셉트는 '국제공항 같은 기차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내부시설이 늘어나고 공항철도가 개설되면서 점차 내부시설이 복잡해지고 통일감이 떨어지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역은 우리 전통 정서를 살리면서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다. 올해 안에 시작하는 디자인 리뉴얼 작업은 이용객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광고물이나 시설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임대매장 간판 등의 전면 재배치, 매장과 전시장의 위치나 수의 조정, 국내외 우수 광고 사례를 접목한 역내 광고 매체 디자인의 개선·규격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역에서 문화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서울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글·김효정 기자

전국신상품전시장에서는 전국 팔도의 특산물을 만나 볼 수 있다.(왼쪽 사진)
환승도우미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서울역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오른쪽 사진)

방역작업을 마친 곰두리봉사회 회원들은 "내 직업과 재능에 자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도 함께하는 곰두리봉사회의 농촌 재능기부

"봉사로 능동적인 삶 찾은 회원들 많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봉사활동을 펼치는 곰두리봉사회 회원들이 농촌 재능기부 활동을 시작했다. 1988년 창립한 이후 2천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봉사회는 올해 경기 용인 길업마을과 충북 청원 내곡동 마을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및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곰두리봉사회 김현덕 회장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는 장애인이 많다"고 밝혔다.

"아유, 이대로 TV에 출연해도 되겠네. 오랜만에 머리 다듬으니 기분 좋으시죠?"

녹음이 짙던 7월 중순, 경기도 용인 길업마을. 40가구가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곰두리봉사회 회원 15명이 마을을 찾아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한 덕분이다.

아침 일찍 도착한 봉사회 회원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다. 한 팀은 구석구석 방역 작업을 시작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방역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인구가 적어 필요한 만큼 이뤄지지 않는 터라 주민들은 봉사회 회원들의 손길을 더욱 반겼다. 더운 날 땀까지 흘리던 봉사회 회원들은 할머니가 건네는 시원한 물 한 잔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다시 소독약 통을 잡았다.

마을 한켠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때 아닌 외모 자랑이 이어졌다. 봉사회 회원들이 작은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각종 미용용품들로 채운 임시 미용실을 만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맞았기 때문이다.

2천6백여 회원 중 장애인이 20퍼센트… "편견 없어요"

이날을 위해 기술을 배워온 봉사회 회원들의 손놀림이 정성스러웠다. 길업마을에서 가까운 미용실까지는 차로 꼬박 10분이 넘는 거리. 자주 찾아가기 어려워 이리저리 뻗친 머리를 회원들에게 맡긴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루 종일 길업마을 곳곳에서 곰두리봉사회 회원들은 쉽게 눈에 띄었다.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했기도 하지만, 회원들이 입고 있는 조끼 덕분이기도 했다. 한쪽 다리를 서로 묶은 곰 두 마리가 그려진 초록 조끼가 상징하는 것은 곰두리봉사회의 독특한 이력이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당시 장애인을 위한 차량 이동 봉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곰두리봉사회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곰두리봉사회 회원 수는 2천6백66명이다. 이 중 20퍼센트가 장애인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늘 같은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창립 당시부터 시작했던 차량 봉사활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 전국체육대회나 각종 시험장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혔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재해구호 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에 꼭 필요한 맞춤 봉사"

봉사회를 이끄는 김현덕 회장 역시 장애인이다. 한 살 무렵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한 김 회장은 그러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살핌만 받아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차별적이다"고 강조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장애인이나 다름없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보통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약자로만 인식해온 것이 사실. 김 회장은 이런 편견에 도전하려 곰두리봉사회를 조직했다.

김 회장은 "1988년 처음 봉사회를 만들 때부터 '수혜자'이기만 하던 장애인의 삶에 능동성을 되찾자는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관계없이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곰두리봉사회 회원 한명 한명은 보통 봉사활동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저 '봉사활동을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등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한 회원도 많다"는 것이 김 회장의 얘기다.

올해 들어서는 재능기부 활동을 새로 시작했다. 김 회장은 "창립 24년째 되다보니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사회에 좀 더 보탬을 줄 수 있을까, 회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해왔다"며 "우연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스마일 재능뱅크 사업을 접하고 재능기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일 재능뱅크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스마일 농어촌운동 국민운동 추진위원회가 이끄는 농어촌 재능기부 캠페인이다. 각자가 가진 재능을 충분히 활용해 급격히 고령화되는 농촌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활동이다. 2011년 8월 처음 시작한 후로 2만명이 넘는 재능기부자들이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곰두리봉사회도 그 중 하나인 셈이다.

1988년부터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봉사활동을 펼쳐온 곰두리봉사회 회원들이 7월 17일 경기도 용인 길업마을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회원들은 갈고 닦은 실력으로 노인들의 머리를 다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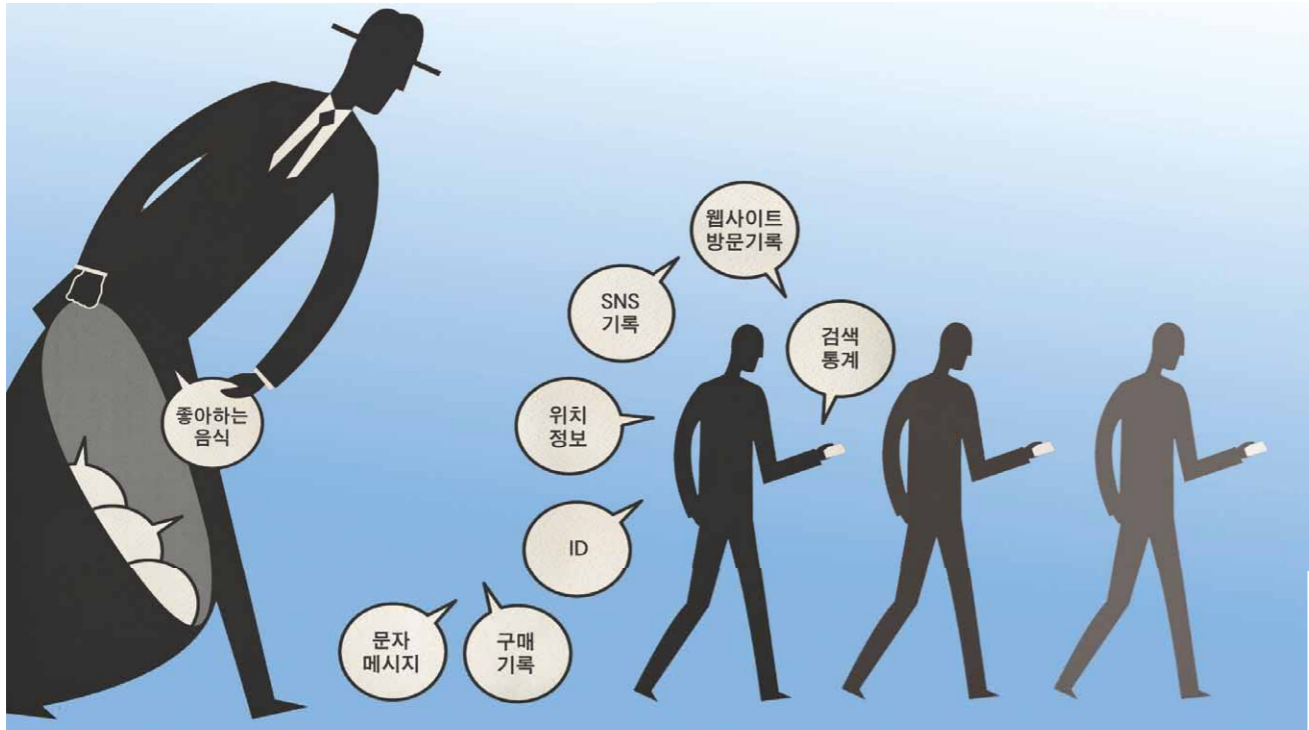
곰두리봉사회 회원들은 경기도 용인 길업마을과 충청북도 청원 내곡동 마을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을 곳곳에 방역작업을 하고 이미용 전문가인 회원들이 나서 노인들의 외모를 다듬는다. 7월 17일 길업마을을 찾았을 때는 마을 주민 모두가 몰려 나와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곰두리봉사회 석춘화 팀장은 "방역작업과 이·미용 봉사 모두 마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봉사활동이었다"며 "봉사받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니 회원들이 더 신명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누군가 도울 수 있다는데 자부심 느껴"

봉사회 회원들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길업마을에서 방역 작업을 펼친 배문순 충북지부 회장도 한쪽 다리가 불편해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배 회장은 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길업마을 모든 가구에 방역 작업을 마친 후 "일상적인 업무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뿌듯함은 물론 내 직업과 재능에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배 회장의 소감이다. 이·미용 봉사에 나섰던 회원들도 앞다투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며 "재능을 갈고 닦아야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석춘화 팀장은 "단지 남을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자아를 가꾸어나가는 것이 원래 봉사활동의 의미"라며 "장애인들도 함께하는 곰두리봉사회의 재능기부 활동이 봉사활동의 본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

글·김효정 기자

조선DB

개인정보 ‘보호’ 넘어선 ‘감시’가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 내세워 기업들이 직원검열에 악용 우려

인터넷실명제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 자율로 실명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실명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심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 지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IT 현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및 파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제한되며 회원 인증 과정에서 보안절차 수립 여부는 단속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업체들은 효과적인 보안절차 수립 방법을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수집해 놓은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대체 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보안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은 위험을 과장하며 과도한 솔루션을 제한하고 있어 말썽이 이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계도기간도 끝나 단속을 예고하고 있고 여기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폐지 이슈까지 발생함으로써 업체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편이다.

위헌판결 받은 인터넷실명제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의 강제적 의무화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회원들에게 실명을 요구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실명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와 같이 여기저기 개인정보가 널려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보안에 구멍이 나기 마련이다. 실명제로 인해 한국 사이트에 글 한 줄 쓰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모두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체가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개인정보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이트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충분하다. 금융거래나 쇼핑몰 등 인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거치면 된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전선이 넓으면 전쟁에서 이기기 힘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어디라도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리 없다. 실명제가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이 기회에 개인정보를 지정된 일부 사이트에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여기를 철옹성처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내부정보 유출방지 기법 남용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회사 전체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해킹을 막고 업무용 컴퓨터에 백신 등 보안 소프트웨어를 깔아 바이러스, 악성 코드, 스파이웨어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는 직원들이 직접 유출시키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데 있다. 보안의식이 없는 직원들이 공개된 게시판에 정보 파일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 의도적인 유출도 가능하다. 때문에 기업들은 '내부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내부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은 직원들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업무용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감시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USB 사용을 금지하며 심지어 무엇을 프린트하는지도 추적한다.

유출방지 소프트웨어는 직원이 주고받는 데이터에 '신제품 도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키워드가 들어 있지 않은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만약 이런 단어가 포함된 데이터가 있다면 해당 직원을 호출하는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된다.

유출방지 정책을 쓰는 경우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적인 데이터 취급은 금지된다. 개인용 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며 외부 웹 메일 사이트도 사용할 수 없다. 업무용이 아닌 사적인 메신저 프로그램은 아예 실행이 되지 않으며 허용되지 않은 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다. 기업의 연구소에서 신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정보 유출방지 기법을 사용한다면 이를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이 영업 부서 등 회사 기밀을 취급한다고 보기 어려운 곳에까지 유출방지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끝나 단속 예고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까지 겹쳐 혼란
개인정보 유출 때 책임소재 못 밝히면
기업을 처벌토록 한 법 규정을 악용
내부정보 유출방지 위한 솔루션 활용
직원 개인정보 감시하는 것은 과잉 보안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밝히지 못하면 기업 측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내부정보 유출방지 기법을 넘어 사용자 감시 수준의 보안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유출이 확인된 후 사후감사를 통해 유출자를 찾아내려면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예 직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를 복제해 놓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업무용 컴퓨터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회사의 서버로 복사되어 따로 저장된다. 개인적인 메신저의 대화 내용과 이메일 내용까지 모두 회사가 가져간다. 한마디로 회사는 직원들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회사는 사용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숨김 기능이 활성화되어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관리자에 직원들 개인정보 상시 노출

사용자는 어떤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는지 알 수 없다. 서버의 개인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안절차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누가 언제 이 데이터를 얼마나 들여다보았는지 기록되지도 않는다. 관리자가 수시로 검열하므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실명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일반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지만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직원 감시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각종 법들이 오히려 인터넷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G

글 · 김인성 (IT칼럼니스트)

영주 무섬마을에서 선비를 만나다

소백산자락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생태탐방로 17곳 중 하나다. 총 거리가 40.7킬로미터로 3구간으로 나뉜다. 그중 경북 영주의 1구간 달밭길 코스는 최근까지 입산통제 구간이어서 새롭다. 소백산자락길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1구간 오솔길과 '선비마을'로 통하는 무섬마을을 걸어 보자.

삼면이 강에 안긴 영주 무섬마을은 오래된 시골마을의 정취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다.

소백산자락길 1구간은 경북 영주 소수서원을 출발하여 금성단, 삼괴정, 죽계구곡, 초암사, 달밭골, 비로사를 지나 삼가주차장에 이르는 총 12.6킬로미터의 코스다. 이 코스는 선비길, 구곡길, 달밭길로 나뉜다. 시간이 없어 한 부분만 걸어야 한다면 비밀의 숲처럼 호젓한 '달밭길'을 추천한다.

선비길은 소수서원에서 금성단을 거쳐 삼괴정에 이르는 길이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데, 서원이 자리 잡은 주변의 풍광도 명성 못지않게 아름답다. 소수서원 진입로에 조성된 소나무 숲에는 고고한 기품이 흐른다. 청록빛 죽계천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가 떠오를 정도다.

소수서원과 이웃한 선비촌은 조선시대 전통가옥을 복원하여 선비와 상민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민속마을이다. 고택숙박체험, 선비체험, 만들기체험(나무공예, 짚풀공예, 한지공예, 천연염색공예), 전통음식체험(떡메치기, 두부만들기), 예절체험(다례체험, 전통혼례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선비촌 인근에 청소년수련관, 소수박물관도 있다.

소수박물관, 선비촌을 둘러보고 금성단으로 향해 보자. 길가에 사과밭이 즐비하다. 가을이 탐스러운 사과처럼 붉게 물드는 중이다. 금성단은 조선 세조 때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정축지변의 참화를 당한 금성대군과 금성대군을 따르던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제단이다. 금성단을 지나 고려 후기 향교였던 순흥향교를 찾아간다. 정축지변 때 폐허가 됐던 순흥향교에는 적막감이 감돈다. 순흥향교를 나와 들녘을 따라 걷는다. 순흥저수지를 오른편에 끼고 걷다 보면 배점리의 삼괴정에 이른다.

소백산자락길 곳곳에 퇴계 선생의 흔적

배점리 입구 정자 앞에는 6백년 된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어 삼괴정이라 불린다. 느티나무는 마치 성문처럼 늠름하게 배점리를 지키고 서 있다. 삼괴정 아래에 '배순정려각'이 있다. 퇴계 이황이 생전에 가르친 제자 중에는 대장장이인 배순이라는 인물도 있었다고 한다. 퇴계 선생이 세상을 뜨고 나서 배순은 삼년상의 예를 다했다고 하는데, 이후 마을 이름이 '배순의 점방'이 있던 곳이라 하여 배점리가 됐다.

삼괴정을 지나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들어서면 구곡길이 시작된다. 삼괴정 앞의 9곡부터 초암사 앞의 1곡까지 아홉 굽이의 계곡길을 거슬러 올라간다. 퇴계 선생이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들린다 하여 굽이마다 9개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퇴계 선생이 즐겨 들었다던 옛날의 그 물소리를 감상하기 위해 물가에 귀를 기울인다. 작은 폭포를 이루며 바위를 타고 넘치는 물소리가 '콸콸', 한여름 소낙비처럼 우렁차다.

죽계구곡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곡이 시작되는 지점에 초암사가 있다. 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부석사 터를 보러 다닐 때 초막을 짓고 임시로 거처했던 곳이라 하여 초암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초암사에서부터 삼가리 주차장에 이르는 길이 달밭길이다. 달밭길은 소백산자락길 1구간의 백미다. '달밭'은 '산에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달밭길엔 화전민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 달밭길의 출발점은 초암사다.

초암사를 지나 숲길로 들어선 지 10분 정도 됐을까. 원시림처럼

무섬마을 고택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다. 숲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배경 삼아 여유를 맛보자.

울창한 숲이 나타난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곳이라 소백산자락길이라고 적힌 리본을 찾지 못하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안갯속을 헤매는 기분이다.

이 숲을 통과하면 그간 개방되지 않았던 계곡길이 드러난다. 벽장에 감춰둔 곶감을 찾아낸 기분이 이럴까. 계곡 굽이마다 맺힌 소(沼)에는 손가락 하나 살짝 담그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가운 계곡물이 고인다. 작은 폭포들이 쉴 새 없이 바위를 타고 흘러넘친다. 수북하게 쌓인 낙엽 위를 걷는 발걸음이 폭신한 이불 위에 누운 듯 편안하다. 낙엽 밟는 소리, 물소리, 산새소리가 삼박자를 맞춘다. 계곡길과 숲길을 번갈아 가며 걷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금선계곡에는 수령 5백년 넘는 소나무와 기암괴석, 맑은 물이 어우러져 멋진 풍치를 만들어 낸다. 그 아름다운 풍치를 바라보는 금선대 위에 금선정이 오롯이 앉아 있다. 금선대라는 이름은 조선 인조 때 인물로, 풍기 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 금계 황준량의 호를 따서 붙인 것이다. 금선정에서 비로봉 쪽으로 오르면 통일신라시대의 천년 고찰 비로사를 만날 수 있다.

소수서원에서 죽계구곡까지는 그늘이 없는 포장도로를 걸어야 한다.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복장을 하는 것이 좋다. 달밭길은 험하진 않지만 계곡이나 산길을 걸어야 하니 경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다.

죽령 옛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소백산자락길의 일부 구간이다. 하루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는 소백산 산행의 출발지를 죽령 옛길로 선택하는 것도 좋다. 희방사역에서 1백미터 정도 올라가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장승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부터 죽령 옛길 걷기 구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름다운 숲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죽령 옛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적은 안내판도 발견할 수 있다.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죽령에 대한 이야기나 삼국시대 때 고구려 온달 장군이 전투를 벌였던 이야기, 주막거리 터 이야기, 신라의 화랑 죽지와 관련된 이야기 등 오랜 역사부터 전설과 설화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따라 읽으며 걷다 보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여행의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죽령 옛길을 내려오면 반가운 풍기온천

희방사역을 출발할 때는 평탄했던 길이 조금씩 가팔라지기 시작하면 석축만 남아 있는 옛 주막거리 터에 이른다. 과거를 보기 위해 길 떠난 선비나 관원들, 장터를 찾아가는 장돌뱅이들이 고개를 넘기 전에 쉬어 가며 하룻밤 묵은 주막이 있던 자리다. 우리도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 본다.

삼림욕을 하듯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에 매력을 느끼고 울창한 숲에서 사계절 다른 모습을 엿보다 보면 금세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죽령 옛길이다. 생태탐방로 같은 안내판에 숲과 나무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돼 있어 소백산 등산 코스와 연계해 산행을 즐겨도 좋은 길이다. 가족과 함께 걸어도 좋다.

풍기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풍기온천에서는 긴 산행의 피로를 풀 수도 있다. 풍기온천의 물은 수질이 좋아 목욕을 하고 나면 금세 피부가 미끈거릴 정도다. 오래전부터 계곡물 근처에서 달걀 썩는 냄새를 풍기는 물이 솟아났는데, 주민들이 피부병 등을 치료했다고 한다. 불소가 다량 함유된 알칼리성 온천으로, 국내에서 몇 안되는 유황온천이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에 폭 안긴 자태가 영락없는 물속의 섬이다. 양반도 평민도 모두 함께 공부했다는 조용한 선비의 마을, 무섬마을로 들어서 보자. '양반마을'보다는 '선비마을'이 더 잘 어울리는 공간, 삼면이 물줄기에 안긴 무섬마을이다.

아예 물 위에 떠 있는 섬은 아니지만 보기에는 물속의 섬 같다. 지명이 한문으로도 똑같다. 물수(水)에 섬도(島)를 써서 수도리,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다. 삼면은 내성천 줄기에 안겨 있고 뒤로는 태백산 끝자락과 이어진다.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내성천과 소

1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주변의 풍경에서도 고즈넉한 역사가 느껴진다. 2 무섬마을에는 식당이 한 곳밖에 없다.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3 죽령 옛길은 산과 이야기가 어우러져 산책하듯 즐기기에 제격이다. 4 경북 풍기는 예로부터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다.

백산에서 흐르는 서천이 이곳에서 몸을 섞어 '물도리동'이라고도 불렸다.

앞산에 올라 무섬마을을 살펴보면 물줄기에 물줄기가 더해지고 산과 물이 태극모양으로 돌아나간다. 마을의 음양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자식이 잘되고 의식이 풍족하다고 해석된다. 또 무섬마을의 물 위에 활짝 핀 연꽃 모양의 땅을 두고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고도 한다.

무섬마을은 낙동강이 숨겨 놓은 물속의 섬

내성천을 건너 무섬마을에 들어오면 오래된 시골 마을에 홀로 들어선 것 같다. 매점도 식당도 한 곳뿐이다. 아직 관광지화하지 않아 찾는 이가 많지 않다. 7월 말까지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은 곳이었다. 내성천을 끼고 펼쳐진 드넓은 백사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조용한 고택에서 쉬어 가기 괜찮다. 현대적이고 편안한 것 대신 여유 있게 한 박자 쉬어 가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다.

고택촌에 왔으니 하룻밤쯤 묵어 봐야 진가를 알 터. 무섬마을에서 진행하는 고택체험으로 하룻밤 보내고 나면 산과 들에 안겨 사는 유유자적한 삶이 그리워진다. 욕심도 싸움도 없는 낙동강 물속, 무섬마을은 그래서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초가을에 찾아가면 금상첨화다. G

글과 사진·유철상 (여행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중앙고속도로 풍기IC로 나와 풍기시내 방향으로 우회전한다. 5번 국도에 접어들어 단양·죽령 방향으로 8.5킬로미터 정도 가면 풍기읍이 나온다. 풍기읍에서 소수서원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무섬마을은 중앙고속도로에서 영주IC로 나와 영주시내 초입에서 문수면 와현리 방향으로 향하면 된다. 달밭길 끝나는 무렵 삼가리에서 풍기시외터미널을 거쳐 영주시외터미널로 가는 26번 버스도 매일 8회 운행한다.

먹을 곳 달밭길 중간에 있는 **산골민박☎054-638-4824**에서는 막걸리와 간단한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다. 순흥면에 있는 **순흥전통묵밥☎054-634-4614**의 묵밥이, **청다리옛집☎054-633-4288**의 콩나물밥이 유명하다. 영주의 특산품인 한우와 풍기인삼을 맛보려면 **한우프라자소☎054-631-8400**와 **풍기인삼갈비☎054-635-2382**를 찾으시라. 선비촌의 **선비촌종가☎054-637-9981** 고등어정식이 추천할 만하다.

잠잘 곳 소백산자락길 1구간의 출발점인 소수서원과 담장을 이웃한 **선비촌☎054-638-6444**에 숙박지가 많다. 소백산자락에 위치한 **옥녀봉 자연휴양림☎054-639-6543**, **하늘호수펜션☎054-638-3688**, **마운틴힐펜션☎054-638-8589**, **로템나무그늘아래☎054-635-6115** 등에서 몸을 누일 수 있다. 풍기읍 성내리의 **풍기인삼관광호텔☎054-637-8800**을 비롯하여 새로 지은 모텔이 많다. 무섬마을 내의 고택체험이나 민박집을 이용해도 좋다.

문의 소백산자락길 영주문화연구회 ☎054-633-5636

콩과 면의 조화, 콩국수

콩국수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 무더운 여름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예로부터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해서 서민들의 자양공급원 역할을 해 왔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가난한 백성이 얻어먹고 목숨을 잇는 것은 오직 이 콩뿐"이라고 했을 정도이다.

식품사학자 고 이성우 교수는 "콩의 원산지는 우리나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콩의 원산지로 일컬어지는 만주가 우리의 조상인 맥족(貊族)의 발상지이며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경생활로 접어들면서 겪게 된 흰자질과 지방의 결핍 문제를 해결한 콩의 개발은 우리 조상의 위대한 슬기라고도 했다.

경기도 팔당 수몰지구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콩의 압문이 있는 무문토기가 우리나라 콩 재배의 오랜 역사를 실물로써 말해 준다는 것이다. 아무튼 콩의 가공은 콩나물, 두부, 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음식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

콩국수에 관한 기록은 19세기 말의 조리서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처음 나타나지만, 그 바탕이 되는 콩국은 오래 전의 기록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고운(孤雲) 최치원이 879년에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문집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에는 "지금 곡포(曲浦)에 의지하여 잠시 비려(飛廬)에서 내려왔는데 띠풀을 엮어 몸을 가리고 콩국을 끓여 배를 채우면서 남은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할 시기를 결정할까 합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임진왜란 직후 비변사(備邊司)에서 선조 임금에게 전몰한 중국군의 제사 문제를 아뢰면서 "제구를 대략 장만하여 제사하게 하면 비록 보리밥·콩국물일지라도 곧 은택에 관계되므로 죽은 자가 감지함이 있다면 또한 어두운 속에서도 느껴 울 것입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콩국을 그리 대단치 않은, 배를 채우는 음식 정도로 치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도 이름이 높은 정구(鄭逑)는 자신의 부인인 광주 이씨의 묘지명(墓誌銘)에 "부인들의 일반 행태 / 가난 고초 싫어하고 / 권세 이익 선망하여 / 가법 흔히 잘못되나 / 이 부인은 달랐으니 / 운명 있음 인정하여 / 나물밥에 콩국 먹고 / 천성 고이 보전했네"라고 썼다. 콩국을 평생 청렴한 선비를 내조한 검소한 삶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단백질이 풍부해 서민들의 자양공급원

조선 후기 정약용의 〈다산시문집〉에는 "춘궁기를 당하여 뒤주가 비는 일이 갈수록 심해져서 콩국 마시는 걸로 만족해야 하니, 참으로 옛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다"라는 편지 구절도 보인다. 콩국이 구황식품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하긴 옛날에도 양반들은 여름에 콩국수보다 깨국수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동국세시기〉에도 여름의 시절음식으로 닭 국물에 볶은 깨를 갈아 섞은 뒤 밀국수를 말아 먹는 백마자탕(白麻子湯)이 나온다. 〈시의전서〉는 콩국수 만드는 법을 "콩을 물에 담가 불린 다음 살짝 데쳐서 맷돌에 갈아 체에 걸러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밀국수를 말고 그 위에 채소 채 친 것을 얹는다"고 하였다. 참으로 재료에 충실한 요리법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콩국수 만드는 방법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콩국수의 맛은 콩과 면의 질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 서울 공릉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제일콩집과 분당 야탑동의 사계진미는 재료의 품질은 물론 정성까지 더한 콩국수 맛으로 이름난 집들이다. G

글·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조광조를 죽음으로 몬 '사림의 적'으로 혹평
군주제 국가에서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최고 실세 좌의정이 되어 방관하는 게 옳을까
훗날 정신적 부채감에 "내 글을 불사르라" 유언

우리 역사학자들의 인물연구는 너무나도 빈약하다. 주로 사건을 연구할 뿐 그 사건들을 만들어 낸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에는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사건은 연구하면서도 인물은 연구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건은 비판하기 쉽지만 인물은 비판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나마 이루어진 인물연구들도 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내려진 인물들에만 한정되고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된 인물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실은 굴곡 많은 삶을 살았던 선조들 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남곤**(南袞·1471~1529)도 역사드라마에서 조광조를 해쳤다는 이유 하나로 거의 악인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남곤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면 긍정적 의미건 부정적 의미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 주는 대목들이 참으로 많다.

남곤은 고려와 조선에 걸쳐 명문가로 꼽히는 의령 남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고 글을 잘 써 문명(文名)이 자자했다고 한다. 열아홉에 생원·진사 모두 합격한 다음 5년 후인 성종 25년(1494년) 문과에 급제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갑자사화가 나던 연산군 10년(1504년) 평안도로 유배를 가야 했다.

다행히 2년 후 중종반정이 일어나는 바람에 조정으로 복귀한 그는 황해도·전라도 관찰사를 거쳐 대사헌에 올랐다. 이때 그를 눈여겨본 인물이 당시의 영의정 정광필이다. 정광필은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 좋은 인재를 많이 발굴한 명정승이다.

이후 다시 승승장구, 중종 14년(1519년) 조정의 최고 실세라 할 수 있는 좌의정에 오른다. 그런데 이 해는 기묘년, 즉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해다. 당시에는 조광조가 도의정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던 때였다. 그런데 중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군주제 나라에서 도의정치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왕권의 부정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두루 사림들과 가까웠던 남곤은 이때 도의정치와 왕권의 선택에서 후자를 택한다. 실록은 "몰래 신무문으로 들어가 임금의 마음을 경동시켰다. 그리하여 사림들을 거의 다 귀양 보내게 했지만 그 형적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그 재주는 따를 수 없다 하겠다"고 남곤의 '행적'을 평하고 있다. 조금은 불분명한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왕조국가에서 임금을 편드는 것은 그 임금이 폭군이 아닌 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당시 사림들 사이에서 도의정치를 내세워 신권(臣權)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셌고 그런 움직임을 차단하는 데 남곤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것은 돌이켜보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도덕주의에 빠져 조광조는 선, 남곤과 심정은 악으로 평가해 온 것은 온당한 처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남곤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실록의 사관이 "남곤은 문장이 대단하고 필법 또한 아름다웠다. 평생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돈을 밝히지 않았다"고 기록한 대목은 눈여겨봐야 한다.

그런데 그는 임종할 때 평생을 두고서 써 온 글들을 모두 불사르게 하면서 "평생 마음과 행실이 어긋났으니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한 유언을 통해 사림에 대한 정신적 부채감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의 글들이 전해졌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G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우리 역사 속 수학 이야기〉

우리 조상 수학 참 잘했어요

이장주 지음
사람의무늬 · 1만2천원

"크고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다. 그 넓이의 합은 4백68평방자이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은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보다 6자만큼 길다고 한다. 두 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자[尺]라는 단위만 미터법 도량형으로 바꾼다면 딱 현대의 수학시험 문제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던져진 공간은 공식 외교석상이었다. 조선 숙종 때인 1713년 청나라 사신 하국주가 우리의 수학자인 홍정하와 유수석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하국주는 청나라의 국립천문대 대장 정도의 벼슬을 하던 사람이다. 사신으로 온 그는 환영연을 준비하는 조선 조정에 "수학 잘하는 학자가 있냐"고 물었다. "내 취미는 수학문제 주고받는 것"이란 설명이었다. 그래서 불려온 것이 홍정하와 유수석. 결과적으로 조선 수학자들의 완승이었다. 홍정하와 유수석은 하국주가 문제를 내는 족족 금세 풀었을 뿐 아니라 궁지에 몰린 하국주가 "그럼 당신들이 문제를 내 보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를 던졌고, 하국주는 결국 "당장에는 못 풀겠지만 내일 답을 주겠다"고 항복하기에 이른 것.

수학 자랑하던 청나라 사신 코 납작해져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성균관대 등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저자는 "옛날 우리 선조들도 지금처럼 수학을 배웠나요?"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저자가 온갖 자료를 모아 놓은 덕택에 서양수학의 도입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수학적으로도 선진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실학자로 유명한 홍대용은 당대 최고 수준의 수학자이기도 했다. 그가 쓴 〈주해수용〉이란 책은 수학적 내용으로 빼곡하다. 가령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5냥씩 돈을 내면 6냥이 남고, 한 사람이 3냥씩 돈을 내면 4냥이 모자란다고 한다. 물건값은 얼마인가?" 같은 문제를 비롯해 논 면적 계산법 등을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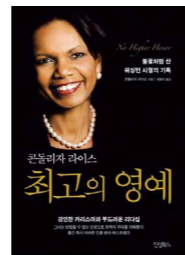
우리의 수학 역사는 까마득히 더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때의 석굴암 내 모든 공간이 1:2 비율의 직사각형으로 정확히 구성된 것, 석굴암 본존불의 비율이 '얼굴:가슴:어깨:무릎=1:2:3:4'라는 내용 등도 소개된다.

저자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수학적으로 뛰어난 민족이고 과학정신이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 확신이 들고 자부심이 생겨서 감히 조상님들의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새로 나온 책

최고의 영예

콘돌리자 라이스 | 진성북스 · 2만5천원

미국 최초로 흑인 여성 안보보좌관과 국무부장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가 쓴 책이다. 9백56쪽의 자서전 안에 '8년간의 미국 현대사'를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9·11테러가 일어난 시점부터, 사건이 어떻게 전쟁과 연결되었는지 등 미국 안보·외교를 책임지며 겪었던 사건들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저자와 함께 일한 동료, 각국 정상, 외무장관들에 대해서 과감한 평가와 묘사를 담았다.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

이토 우지다카 지음 | 21세기북스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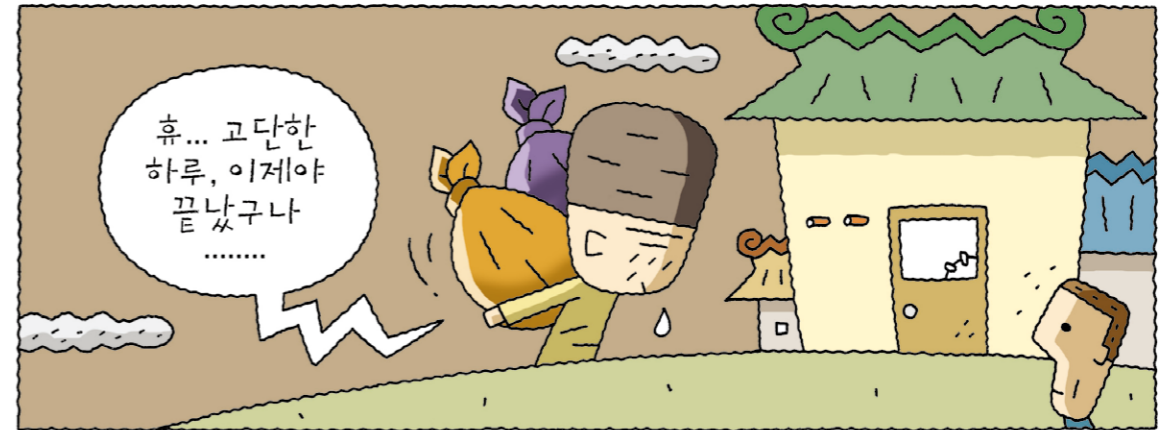
1950년부터 일본 고베에 있는 사립학교 '나다'에서 시작된 실험적 글읽기 수업의 이야기를 담았다. 학생들은 3년 동안 교과서를 버리고 소설책 1권을 읽는 수업을 들었다. 책을 천천히 깊이 음미하며 때론 흥미를 좇아 샛길로 빠지기도 하며 학생들은 슬로 리딩의 재미를 배웠다. 일본 주류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된 이 수업 수혜자들이 기억하는 하시모토 선생님과 슬로 리딩 수업의 장점을 담았다.

좋은 아버지 수업

임정묵 지음 | 좋은날들 · 1만2천8백원

사랑에 서툰 아버지들을 위한 책. 좋은 아버지가 되는 데 필요한 아버지다움과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아버지로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 들려준다. 저자는, 엄마가 가정교육의 최전선에서 아이와 대치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후방에서 때로는 엄마를, 때로는 아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 그놈의 근심 덩어리들

글과 그림 · 최영순

어두운 표정으로 귀가하지 마라. 가정은 병원이 아니다.
- '행복한 가정을 위한 남편 7계명' 중에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가 9월 5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한류 열풍 계속 이어갈 방송콘텐츠 모두 모였다

제12회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우수 콘텐츠들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해 주는 2012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가 나흘간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BCWW에는 국내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사 및 일본 NHK·후지TV, 영국 BBC·iTV 등 세계 55개 방송사, 제작사, 바이어가 참가해 수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중국국제방송공사(CITVC), 상하이미디어그룹(SMG) 등에서 1백여 명의 콘텐츠 유통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가한다.

BCWW는 그동안 방송콘텐츠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행사 첫해인 2001년에는 25개국이 참가해 5백70만 달러(약 74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50개국이 2천9백50만 달러(약 2백90억원)어치의 수출 상담을 벌였다.

올해 주요 참가작으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대왕의 꿈〉, 〈아랑사또전〉, 〈메이퀸〉, 〈신의〉, 〈아름다운 그대에게〉 등 한류 열풍을 이을 드라마들이 있다. 드라마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 우수콘텐츠를 보유하고도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비즈 매칭 프로그램과 방송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콘퍼런스도 진행된다. 방송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정리·이현민 인턴기자

기간 9월 5~7일 **장소** 코엑스 **문의** ☎02-3153-1448

전시 **제34회 중앙미술대전 올해의 선정작가전**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중앙미술대전 올해의 선정작가전에서는 3개 분야에서 선정된 15명의 작가 작품을 전시한다. 2004년에 신설된 사진·영상·뉴미디어 부문 등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선정작가 인터뷰 동영상을 상영하고 도슨트(문화해설사)를 운영하며, 관람객 투표로 인기 작가를 선발해 관람객과의 소통을 활발히 할 예정이다.

기간 9월 5~14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02-2000-6305

공연 **최성수 마이스토리**

'풀잎사랑'의 가수 최성수가 준비한 고품격 콘서트가 펼쳐진다. 힐링, 열정, 드림, 공감 4개의 테마로 매회 새로운 게스트들과 다른 색깔의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디자이너 이효재를 시작으로 방송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 가수 백청강, 이태권, 손진영과 국악인 박애리 부부, 탤런트 박경림이 출연한다. 문화 아이콘들과 함께 꾸며 가는 이번 공연은 퓨전문화콘서트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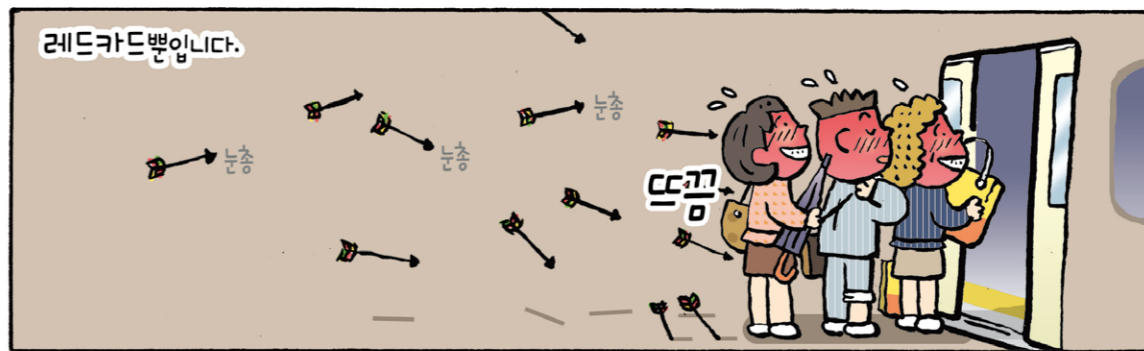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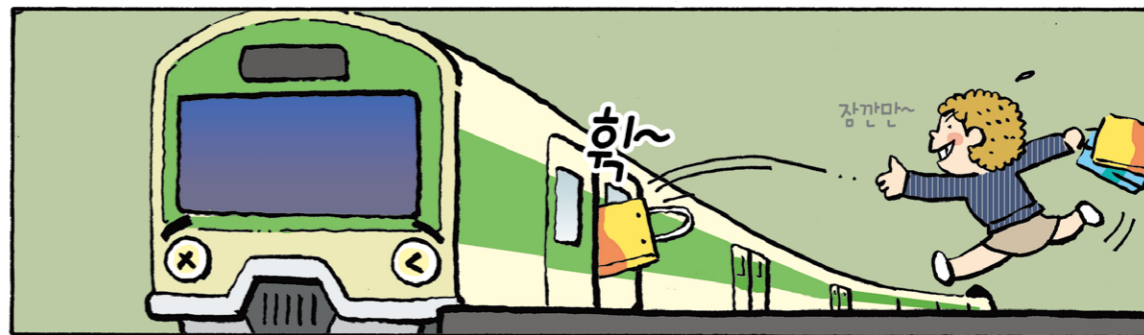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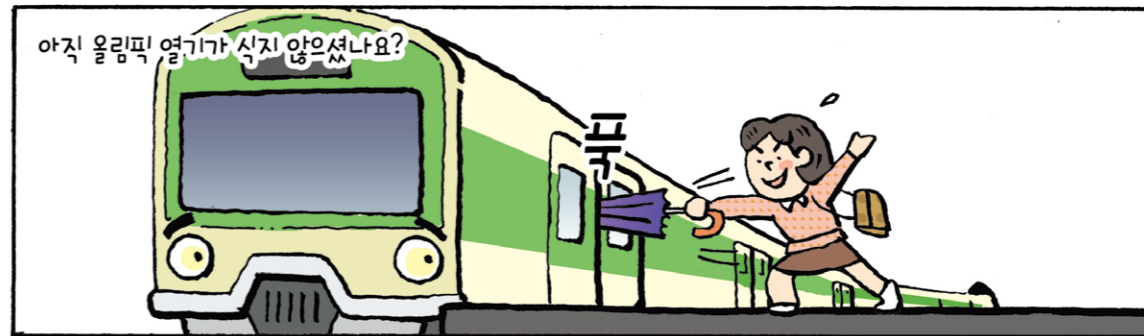
기간 9월 8~9일, 15~16일 **장소** 서울 백암아트홀
문의 ☎1544-2498

9월 첫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8월 19일~8월 25일

	곡명	가수
1	I Need You	허각, 지아
2	Pandora	카라
3	강남스타일	싸이
4	Anymore	서인영
5	아름다운 밤이야	비스트
6	Only one	보아
7	내 사랑아	이종현
8	뜨거운 안녕	싸이
9	Loving you	씨스타
10	남자도 우나요	다비치

레드카드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문 닫히는 전동차, 급해도 그냥 보냅시다.

1분, 아니 1초의 배려

얼마 전부터 고등학생들이 출연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밤 11시30분, 전자우편으로 발송된 대본을 열어 보니, 5회는 목포와 대전, 6회는 경기도 성남과 김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녹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보통 때라면 5회를 오전에 하고, 6회를 오후에 하는 게 맞겠지만, 5회 출연 학생들 거주지역이 목포와 대전 녹화 순서를 오후로 바꿨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30분 녹화장 대기실.

"어, 일찍들 왔구나. 어느 학교니?"

"네. 목포 ○○학교입니다."

"뭐? 목포? 아니 너희, 그럼, 목포에서 언제 올라왔니?"

"어제 와서 유스호스텔에서 잤습니다."

"그래? 아, 그래! 그럼, 간밤에 합숙 훈련 좀 했겠구나?"

일러스트 · 박영민

대화가 없으니 녹화시각 융통성 발휘 못해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 있었다. 목포 학생들을 아침에 오라고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녹화가 모두 끝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사연을 물어보았다.

이번 녹화부터 팀에 합류한 한 PD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라고 했다. 총감독은 "그러게요, 목포 애들이 왜 오전에 녹화를 하게 됐을까요?"라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어떻게 출연 학교, 녹화 순서를 당일까지 아무도 모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연을 알고 있는 것은 자리에 없는 담당 작가뿐이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오늘 목포 학생들이 오전에 녹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방송 순서가 5회여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애들이 좀 힘들었겠더라고요."

"아니, 그걸 아침에야 깨달았습니까? 방송 순서가 그렇더라도 녹화 순서를 오후로 바꿔주면 되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되는데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목포 학생들을 아침 일찍 오게 하고, 그 사실은 녹화시각을 통고한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목포 학생들은 전날 올라와야 했고, 목포와 함께 녹화한 대전 학생들도 아침 7시 기차를 타기 위해 5시에는 일어나야 했다.

녹화가 오후였다면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어른들이 그만한 배려도 못하나?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을까? 대화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을까? G

글 · 정재환 (방송인 ·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